

韓國經濟와 地域構造

— 國土綜合開發의 基本的構想을 爲한 序說 —

吳 萬 植

目 次

- 1. 經濟計劃과 國土綜合計劃
 - 1. 國土綜合開發의 意義
 - 2. 長期經濟計劃의 一環으로서의 國土開發
 - 3. 長期經濟計劃과 國土開發과의 關係
 - 4. 國土開發의 問題點
- 2. 經濟水準의 地域構造
 - 1. 地域格差와 二重構造
 - 2. 地域格差의 實態
 - (1) 所得面
 - ① 所得의 地域構造
 - (A) 地域別所得格差
 - (B) 地域別所得階層
 - ② 勞賃의 地域構造
 - (A) 地域別規模別格差
 - (B) 地域別業種別格差
 - (2) 産業面
 - ① 農業의 地域構造
 - ② 工業의 地域構造
- 3. 國土綜合開發의 基本方向
 - 1. 工業開發의 方向과 地域의 配置
 - (1) 工業開發의 基本方向
 - (2) 工業開發의 推進策
 - 2. 農·林·漁業의 發展方向
 - (1) 農業開發의 基本方向
 - (2) 林業開發의 基本方向
 - (3) 漁業開發의 基本方向
 - 3. 都市發展의 方向

1. 經濟計劃과 國土綜合開發

(1) 國土綜合開發의 意義

國土綜合開發이란 「國土의 自然的條件을 考慮하여 經濟 社會 文化等에 關한 施策이 綜合的인 見地에서 國土를 綜合的으로 利用 開發 및 保全하고 또 産業立地의 適正化를 期하며 社會福祉의 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하여 國家나 地方 公共團體의 施策을 綜合的으로 調整하려는 計劃」으로서 다음 事項에 關한 것을 말한다.

- ① 土地 물 其他의 天然資源의 開發
- ② 水害 風害 其他의 災害防止
- ③ 都市 및 農村의 規模 및 配置의 調整
- ④ 産業立地의 適正化
- ⑤ 電力 交通 通信 其他의 重要한 公共施設
- ⑥ 文化 厚生 및 觀光에 關한 資源의 保護施設의 規模 및 配置

韓國처럼 特히 資源이 缺乏한데다가 那樣 적은 資源조차 充分히 活用하지 못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國土綜合開發의 遂行이 切實히 要請된다고 함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_그뿐만 아니라 今일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資源이 豊富한 美國 蘇聯外 여러나라에서도 여러가지 老大人 計畫이 實踐에 옮겨지고 있는 實情에 있다. 具體的으로 例를 들면 美國의 「테네시」江 「미조리」江 「코롬비아」江 「코로라도」江 「센트로렌스」江 등의 河域開發計劃 英國의 「都市 및 地方計劃法」의 成立 「코롬보」計劃 佛蘭西의 「롱누」江 開發計劃 蘇聯의 大自然改造計劃等等 數 많은 國土綜合開發計劃이 着着 實踐에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勿論 우리가 一定地域을 全體的으로 把握하여 綜合的 合理的으로 開發한다는 것이 綜合開發의 基本的인 理念이라고 할 수 있으나 開發이라고 해서 반드시 未開發地域의 開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開發된 地域을 다시 再調整 再開發하는 것도 또한 國土綜合開發의 對象이 된다. 우리 韓國의 境遇에 있어서는 後者의 重要性을 輕視할 수 없다. 그리고 國土綜合開發計劃作成에 있어서는 國家施策의 方向과 符合할 必要가 있음을 再言할 必要가 없다. 從來의 矛盾과 不合理을 再調整하는 方法이라든가 地方民의 그 地方의 開發에 對한 要望도 그 計劃內容에 考慮할 必要가 있을 것이며 開發效果를 一層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創意的인 研究도 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普遍的인 順序로서 어떤 地域의 開發計劃을 樹立하는 境遇 첫째 그 地域의 開發에서 무엇을 重點으로 할 것인가를 明白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主要目標이라고 呼稱한다. 例를 들면 어떤 地域에서는 河川의 가장 合理的인 治水 水利가 主要目標이며 또 어떤 地域에서는 農地開發 혹은 大都市周邊의 整理라든가 鑛工業의 整備가 目標인 경우도 있다. 다음에 이들 主要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主要事業의 編成에 따라 地域開發의 「대상」을 그리게 되며 여기에 따라 根幹이 될 事業을 選定한다. 그리고 다음에 이들 根幹事業을 基礎로 하여 살을 부치게 되며 이때에는 綜合開發의 條件과 效果를 考慮하면서 國土綜合開發計劃을 作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2) 長期經濟計劃의 一環으로서의 國土開發

長期經濟計劃을 遂行하기 爲해서 國家가 行할 政策도 多方面에 亘한다. 通貨政策 產業政策 社會 呆障政策等과 더불어 國土開發政策도 그의 한 支柱이다. 그러면 地域開發이란 形態로서 產業政策과는 別個로 特히 國土開發政策이 問題視되지 않으면 안되는 主要한 理由는 那邊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나라의 經濟發展의 潛在力과 政策的調整을 要求하는 諸矛盾이 이들나라 全體에 平等히 無差別로 分布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地域의 集中을 表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國土(地域)開發의 對象이 되는 地域이란 國土의 一部分으로서 如何한 境遇를 莫論하고 特別한 地域의 集積을 表示하고 있는 部分을 말한다. 따라서 如斯한 國土開發政策은 產業政策과 併行해서 그것을 補強하는 形態로서 이러한 地域의 集積을 良循環의 境遇에는 促進시키며 惡循環의 境遇에는 緩和함을 經濟의 目的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開發이란 概念은 最廣義의 成長이란 概念과 對應하고 그 中の 特殊形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最廣義의 成長이란 經濟成長을 捕捉하는 세가지의 基本的 指標인 人口 生産力 福祉에 있어서 그것이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그의 規模가 擴大하고 그의 構造가 高度化하며 그의 主體的 態度가 變化함을 意味한다.

그러나 狹義의 成長은 그 中에서 特히 다음과

같은 點을 抽出하여 強調한다.

Ⅰ 成長의 세가지 指標中에서 規模의 (量的) 擴大에 重點을 둔다.

Ⅱ 成長을 圖謀하는 指標中에서는 「國民所得 特히 一人當國民所得」에 重點을 둔다.

Ⅲ 上述한 두가지 事實에서 經濟進步의 連續性을 重視하는 傾向이 있다.

Ⅳ 需要增大에 誘發된 投資(誘發投資)를 中心으로 해서 생각하는 傾向이 強하다. 그런데 如斯한 狹義의 「成長」에 對해서 發展은 若干 相異한 點을 強調한다. 勿論 發展이란 概念도 多義의 으로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狹義의 成長과 同意로 使用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相異한 點을 強調하는 사람들의 使用法에 따른다.

Ⅰ 「規模의 擴大」보다 「構造의 高度化」와 그의 背後에 있는 「主體的 態度의 變化」에 主點을 둔다.

Ⅱ 「發展」을 圖謀하는 指標로서 「所得」指標外에 生産力이나 所得外의 福祉指標까지도 重視한다. 그리고 이들의 潛在力의 增加도 加味한다.

Ⅲ 上述한 두가지 事實로부터 經濟의 非連續性을 強調하는 傾向이 있다.

Ⅳ 需要先導(誘發投資) 보다도 供給先導(獨占 先行投資)를 中心으로 생각하여 가는 傾向이 있다. 여기서 이러한 狹義의 「成長」과 「發展」과를 對比하여 볼 때 「開發」은 發展과 共通性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兩者의 共通의 點內에서도 「發展」과 「開發」을 區別하는 者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主張에 依하면 經濟開發은 經濟發展의 特殊形態라고 하며 그의 特殊性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點에서 求해진다.

① 事前的條件變更政策

「發展」도 與件을 變化시키나 「開發」은 與件을 보다 크게 그리고 事前的으로 變更시키는 性格을 가진다는 것이다. 只今까지 利用되지 못한 物의 人的 諸資源을 利用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므로서 經濟의 틀을 그 自體를 擴大深化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② 國家政策

「發展」은 이를 遂行하는 主體에 따라서 特別한 限定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開發」은 國家나 이것에 準하는 公共體가 主體가 되어서 行하는 政策이라는 特殊性格을 가지고 있다. 特히 混合

主義體制의 境遇에는 實際的으로는 中央·地方의 政府와 民間企業과의 協同으로서 開發事業이 行하여지는 境遇가 많다.

③ 公益追求政策

「發展」은 이를 遂行하는 動機에 對해서 特別한 限定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開發」은 產業政策과 더불어 國家의 經濟政策의 一環이므로 當然히 公益目的의 追求를 動機로 한다. 여기서 公益의 具體的 內容은 때로는 緊急必要物資의 增産이며 때로는 國民的 最低限의 確保이고 때로는 格差의 是正이고 때로는 私企業主導의 產業活動에 對한 補強이나 公益을 表面에 내걸고 있다는 點에서 特別한 性格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對해서 國土開發이라고 할 때에는 最廣義의 境遇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것이 더욱 添加된다. 그 中의 第一은 最廣義의 成長外에 安定이나 調整이란 概念을 包含하며, 第二는 經濟政策뿐만 아니라 이에 社會政策까지도 包含하고 있다. 그러므로 國土開發政策이란 國家가 主體가 되어서 產業政策을 補強하는 形態로서 現在 利用되지 못한 物的 人的 諸資源을 利用할 수 있는 境遇를 만들고 民間企業과의 協同을 통해서 國土의 一部인 地域에 對해서 그의 良循環은 促進시키고 惡循環은 緩和시킴을 目的으로 하는 最廣義의 成長을 實現코져 하는 것이다.

(3) 長期經濟計劃과 國土開發과의 關係

다음에는 上述한 諸定義를 基礎로 해서 長期經濟計劃과 그의 一環으로서의 國土開發과의 關係를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① 長期經濟計劃과 國土開發과의 共通性

長期經濟計劃과 國土開發과는 몇個의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第1은 모두가 長期的 動態的政策이라는 點이다. 따라서 이는 短期的 靜態的基準으로서 그의 效果를 判斷할 수는 없다.

第2는 모두 事業을 遂行하는 境遇에 公共體와 私企業과의 協同作業이 必要하며 이 兩者의 協同의 방식에 있어서 各種의 複雜한 問題를 惹起시킨다.

第3은 모두 傳統的인 좁은 意味에서의 經濟問題를 超越하는 側面을 가지며 그의 基本的 目標

自體가 매우 多元的인 것으로서 여기에 諸目標의 順位와 調整에 어려운 問題를 內包한다.

以上과 같은 세가지 것은 經濟理論의 傳統的인 模型이나 規則으로서 立證하기가 困難한 面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들은 우리가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常識이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가지게 되는 理由이기도 하다.

② 長期經濟計劃과 國土開發과의 差異點

그러나 長期經濟計劃과 國土開發과는 또 若干의 相異點을 가진다.

第1은 範圍에 있어서 長期經濟計劃은 그의 國民經濟全體이나 國土開發은 國土의 어느 特定部分이다. 勿論 國土計劃이나 全國綜合開發에 있어서도 一旦 國土의 全部를 카-바하는 것이기는 하나 實際에 있어서는 地域別로 開發政策의 目的이 되고 手段의 重點이 相異하므로 그 結果 地域의 區分이나 重點의 設定이란 問題는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國土開發의 境遇에는 우리들이 國土開發의 對象과 地域을 如何히 選定하느냐 하는 어려운 問題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다.

第2는 國民經濟의 長期經濟計劃에 있어서는 國家 또는 中央政府가 窮極的인 責任者로서 明確하나 國土開發의 境遇에는 그의 地域의 決定과 混合되어서 窮極의 責任者가 明白치 않다. 여기에 行政單位와 國土開發의 範圍가 一致하지 않는 境遇 中央政府 中央의 政府金融機關 地方自治團體 中央과 地方의 私企業 등이 混合되어서 協同作業을 營爲하는 境遇는 특히 그러하다. 이와 같은 國土開發의 境遇에는 누구에게 如何한 形態로서 開發資金을 提供하느냐 하는 매우 어려운 問題에 當面하게 된다.

第3은 國土開發의 境遇는 國家全體의 利益과 地域의 利益과가 矛盾하는 境遇가 적지 않다. 이것을 如何히 調整하느냐 하는 特殊한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第4는 地域經濟는 理論的으로는 孤立化시키기 困難하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보아서도 總計量의 形態로서 國土開發의 效果를 論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開發의 投資效果를 如何한 基準으로 如何히 測定하느냐 하는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以上과 같은 네가지의 理論的으로 困難한 問

는 國家全體의 長期經濟計劃의 境遇에도 形態는 다르나마 存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國土開發의 境遇에는 明確히 나타나며 이것이 國土開發政策의 理論的 基礎를 一層 未成熟한 것으로 하는 理由이기도 하다. 여기서 上述한 바와 같은 各種의 論議를 再調整해서 國土開發을 考察하는 境遇에 우리가 論議해야 할 네가지의 基本인 問題點은 大體로 다음과 같다.

(4) 國土開發의 問題點

第 1은 國土開發의 基本目標에 關한 問題이며 이것은 各各의 地域에 對해서 이를 定할 諸目標의 問題와 順位의 問題가 그 內容을 形成한다.

第 2는 國土開發의 基本目標과 對照해서 그의 開發政策의 對象이 되는 地域을 如何한 範圍로 이를 選定할 것인가 卽 全域과 特定地域의 問題가 있다.

第 3은 國土開發이 그의 基本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무엇을 如何한 方法으로 누가 責任을 지고 開發할 것이냐하는 問題이며 이것은 國土開發의 戰略目標과 主體와 資金形態의 問題이다.

第 4는 國土開發의 基本目標에 비추어서 國土開發의 諸效果를 判定하려는 境遇에 무엇을 基準으로 해서 如何한 形態로서 判定할 것이냐 하는 問題 卽 效果判斷의 技術의 問題이다.

따라서 國土開發의 將來는 基本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것에 依存한다.

第 1은 國家全體의 長期經濟計劃의 規模와 性各 그리고 特히 그의 性格에 關聯해서 長期經濟計劃中에 國土開發에 賦與된 相對的인 地位

第 2는 以上과 같은 國土開發의 네가지의 根本問題에 對해서 國土開發의 主體가 如何히 創造적으로 解答을 만들어가느냐의 두 가지이다.

2. 經濟水準의 地域構造

(1) 地域格差와 二重構造

韓國經濟의 二重構造란 通說에 依하면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近代的인 部門과 前近代의인 部門과의 特異한 補完關係에 立脚한 併存이라는 事實을 指稱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때때로 大企業과 中小企業 乃至 農業과의 關係가 많

이 問題視된다. 그 뿐만아니라 또 規模別 業種別 地域別로 본 經濟水準의 格差를 同伴한 二重構造問題가 高度成長과 더불어 顯在化하고 또 經濟의 民主化가 進展함에 따라서 格差意識이 高度화된 데에도 이 問題의 焦點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指摘해야 할 것은 上述한 바 있는 二重構造와 所得格差와는 同義語가 아니라는 事實이다. 여기서 二重構造란 前近代性과 近代性이란 異質的인 것이 가지는 構造上의 關係이고 따라서 우리가 二重構造의 是正 乃至 解消라고 할 때에는 이들 두 異質的인 要素의 同等化를 意味한다. 그러나 如斯한 二重構造의 解消는 前近代的인 「섹터」를 近代化하지 않는 限 不可能한 것이며 近代化에로의 努力을 同伴하지 않는 如何한 對策도 假令 그것에 依해서 所得格差가 縮少했다고 해도 眞正한 解決策은 못된다. 따라서 우리가 假令 中小企業의 振興이라고 해도 그것의 眞正한 意味內容은 企業家精神 經營 打開 方便關係等의 모든 分野에 對해서 近代化에 拍車를 加하는 것이며 그의 反對는 아니다. 그런故로 이것은 近代的 企業으로서의 存立條件을 確保하는 것이며 여기서 單純한 救濟策은 一時的 問題의 處分일런지 모르나 根本的인 同題의 解決은 아니며 所謂 矛盾의 溫存에 寄與함에 不過하게 된다.

그런데 이에 對해서 格差의 是正 乃至 解消란 點에 이르면 問題의 觀點은 自然 이 것과 相異하게 된다. 왜냐하면 經濟水準의 地域格差는 一人當資本資產의 「스톡크」를 爲해서 所得水準 生活水準의 格差로서 出現할 뿐만아니라 地域面의 成長率格差로서도 나타난다. 또 그 뿐만아니라 그것은 地方財政規模 및 그의 實質收支의 樣相에도 反映되고 特히 人口의 社會的 移動과 같은 것은 地域面의 成長率格差에 對應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注目할 만한 것은 우리 韓國經濟가 이러한 地域格差를 同伴하면서도 어떤 種類의 均衡이 成立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라그나 녀시」教授가 말하는 低開發下의 均衡이 그것이다. 國土綜合開發은 무엇보다도 于先 이와 같은 基本的 事實을 認識하고 이것을 前提로 해서 推進하지 않으면 안된다. 上述한 바와 같이 國土綜合開發이란 國土의 自然的 條件을 考慮해서 經濟, 社會, 文化等에 關한 施策

의 綜合的 見地에서 國土를 綜合的으로 利用하고 開發하며 保全하고 그와 아울러 産業立地에서 適正化를 圖謀하고 社會福祉의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國土綜合開發計劃이 한편에 있어서는 地域經濟開發計劃임을 意味함과 同時에 또 한편에 있어서는 國土開發은 經濟의 進歩가 社會福祉向上이란 安定條件을 充足시키는 限에 있어서 비로소 充分한 意味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經濟水準의 地域格差에 對해서는 이미 英國의 「아담 스미스」가 이를 取扱한 바 있다. 卽 「아담 스미스」가 指摘하는 것을 보면 「勞動의 勞賃은 食料品の 價格에 比例하고 場所에 依한 變動은 보다 크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關해서 「스미스」는 「勞動의 勞賃이 가장 높은 것은 가장 富裕한 나라에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繁榮하여 가는 나라 卽 가장 急速히 富裕하게 되어 가는 國家에 있어서이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國家의 繁榮에 關한 가장 決定的인 指標는 住民의 數의 增加이다」라고 말한다 上述한 바와 같이 여기서 「스미스」의 눈에 비친 것은 역시 勞賃水準 및 經濟成長率에서 보여지는 地域格差의 存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地域面의 不均衡을 是正하기 爲한 條件에 關해서는 아직 明確한 解答을 賦與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스미스」는 「經驗上 人間이란 것은 모든 貨物中에서 가장 運送이 困難한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勞動의 社會的 移動의 困難性을 指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스미스」는 所謂 自然的 調和의 體系에도 一定한 限界가 있음을 認定할 수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스미스」가 提起한 勞動移動性의 問題는 經濟水準의 地域格差를 是正하기 爲한 手段中의 하나를 널리 生産要素의 可動性에서 求한 點에 있어서 充分히 現代의 意義를 가진다. 그리고 또 國內的인 資本移動보다도 國際間的 그것이 一層 困難함을 主張한 「데이비드 리카아도」도 그의 構想方法은 「아담 스미스」에서 摺得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問題를 國民經濟에 限定하는 限 勞動에 比해서 資本의 移動性이 높고 特히 經濟의 發展에 따라서 後者の 移動率이 一層 높아 감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는 如斯한 經濟水準의 地域格差를 勞動과 資本의 自由로운 移動이라는 適應의 過程만으로서 이를 縮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스미스」의 境遇에 있어서는 急速히 擴大化하는 經濟規模 그 自體가 어느程度까지 이러한 矛盾을 그 中에 解消시킬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아직 그것에도 一定한 限界가 있었음은 이미 前述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 限界性의 存在는 今에도 變함은 없다. 왜냐하면 「스미스」의 時代보다도 一層 移動의 自由가 容易하게 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經濟水準의 地域格差는 後進國에서 뿐만 아니라 先進國에 있어서까지 아직 如前히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地域格差의 實態

우리들은 于先 事實을 確定하기 爲해서 若干의 基本的 統計資料를 檢討하는 것으로부터 始作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各國의 地域構造를 明白히 하려는 試圖은 戰前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最近 高度成長과 二重構造와의 關聯性이 問題化되고 特히 地域格差意識이 高度化함에 따라서 이에 對한 各種의 試圖가 企圖되기에 이르렀다. 最近에 있어서 各國의 地域格差를 明白히 하려는 것으로서 經濟力의 地域間格差를 測定하려는 것이 있고 또는 生活水準의 測定을 目的으로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境遇에 따라서는 道·市 經濟力差와 消費 購買力을 同時에 測定하려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그間 地域格差問題가 많이 論하여졌음에도 不拘하고 그의 定義나 測定方法에 있어서 一定한 統一의 方法이 아직 樹立되고 있지 못함은 遺憾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現在까지 많이 取하여진 格差測定의 方法은 一人當國民所得을 中心으로 해서 最高値를 가지는 서울特別市와 最低値를 가지는 地方과의 사이의 絕對的格差에 着限해서 그의 開差가 問題視되어 왔다.

그리고 實際 우리나라의 最高値와 最低値와의 格差 卽 極差에 對해서 보면 그間 漸次로 擴大化의 傾向을 보여 왔다. 그러나 美國과 같은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그나라의 經濟發展이 漸次로 進行함에 따라서 長期的으로는 그의 格差가 漸次로 縮小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은

極差擴大의 傾向에 있는 우리나라의 境遇와는 매우 對照인 것이다.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나라의 經濟水準의 地域格差를 明白히 하기 위해서 所得面 產業面에서 이를 考察하여 보고저 한다.

① 所得面

I 所得의 地域構造

우리나라 經濟의 二重構造의 하나의 形態로서 先進地域과 後進地域과의 사이에 所得水準의 큰 格差가 存在하고 있고 또 이러한 所得格差는 今後의 經濟成長過程에서 一層 擴大化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은 이미 以前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 依해서 指摘되어 왔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格差는 政策的으로 이를 是正할 必要가 있다는 提案도 強力히 主張되어 왔으나 그의 大部分은 後進地域으로부터의 政治的 要請이란 形式으로 提唱되고 內容的으로 보아도 各地域의 民族主義의

인 開發促進의 要求란 性格이 強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確定的인 地域別 國民所得의 測定이 行하여지지 못하고 그間 USOM 當局에 依한 1955年度 道別國民總生產額推計의 試案이 있을 뿐이므로 이 資料에 依據하여 우리나라 地域別所得格差의 概要를 比較하여 보고저 한다.

(A) 地域別所得格差

統計的으로 地域間所得格差의 實態를 把握하고 또 如斯한 所得格差를 發生시키고 있는 諸要因을 捕捉한다는 것은 地域區分의 問題 統計技術上의 問題等 매우 많은 困難을 同伴한다. 따라서 統計的 嚴密性을 一旦 여기서 拋棄하고서 우리나라의 地域間 所得格差를 發生시키고 있는 諸指標를 整理하여 보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은 大體로 下記表와 같다.

1955年道別國民總生產額

(單位：百萬韓)

區 分	서울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江原	濟州	合計
農林水產業	6,220	49,039	21,429	40,710	34,338	73,119	71,279	61,136	23,985	5,493	369,747
農 業	2,348	41,506	19,172	36,624	19,332	64,190	60,309	51,080	18,645	4,673	34,879
家畜業	3,290	2,332	1,308	2,492	12,587	2,893	3,341	2,802	1,587	374	23,006
林 業	5,802	4,003	949	1,080	1,506	3,011	6,953	3,157	2,120	302	23,661
漁 業	—	1,198	—	514	913	3,025	676	4,097	1,634	144	12,201
鑛業製造業	32,847	6,775	4,003	5,055	6,855	5,297	15,011	25,338	9,558	256	107,996
鑛 業	9	218	399	678	521	419	967	125	4,164	—	7,500
製造業	32,838	6,557	3,604	4,377	6,334	4,878	14,044	25,213	2,394	256	100,496
建設業	12,537	3,006	1,172	3,267	2,051	1,911	3,322	4,637	2,914	35	34,873
電力, 外, 水, 道, 衛生業	1,910	635	147	381	316	334	565	1,037	597	2	5,934
電力業	1,650	609	137	355	303	299	513	1,037	597	2	5,502
가스業	56	—	—	—	—	—	—	—	—	—	56
水道業	188	26	10	26	13	35	52	—	—	—	350
衛生業	16	—	—	—	—	—	—	—	—	—	16
交通倉庫通信業	6,117	2,598	703	1,305	941	3,535	2,045	9,269	858	94	27,465
交通業	5,594	2,428	633	1,172	830	3,276	1,854	8,713	764	76	25,340
倉庫業	250	103	25	44	35	142	74	391	31	3	1,098
通信業	273	67	45	89	76	117	117	165	63	15	1,027
都小賣業	20,438	15,193	7,014	12,835	13,336	20,144	22,855	25,670	8,414	1,459	147,357
銀行保險不動產業	3,133	566	330	537	475	658	733	1,034	283	54	7,803
銀行業	2,643	533	308	505	442	624	694	967	245	49	7,010
無盡業	76	12	8	12	14	16	17	26	8	2	191
保險業	135	20	14	16	18	13	22	38	30	3	309
證券業	85	—	—	—	—	—	—	—	—	—	85
不動產業	176	—	—	—	—	—	—	—	—	—	176
國民生命保險 및 郵便年金	18	1	—	14	1	5	—	3	—	—	32

家屋賃貸料	9,296	6,470	3,577	5,181	15,470	9,378	9,859	12,537	2,330	292	64,393
一般行政 및 國防	11,024	5,855	3,226	5,687	5,418	7,556	8,555	9,939	3,369	780	61,409
一般行政	7,176	1,307	690	1,095	1,132	1,520	1,732	1,891	920	212	17,675
國 防	3,848	4,548	2,536	4,592	4,286	6,036	6,823	8,048	2,449	568	43,734
外 비 스	14,243	7,479	3,501	7,560	6,525	7,556	12,652	14,402	4,774	875	79,570
海 外 部 門	13,600	—	—	—	—	—	—	—	—	—	—
合 計	13,138	59,616	45,103	82,518	35,724	129,491	146,876	164,999	54,086	9,340	947,137

우리나라地域間所得格差의 諸指標

區 分	道 別 所 得			就 業 構 造		農 家 構 造		工 業 構 造	
	人 口	GNP一人當所得		1次産業	2次産業	米穀反當收穫量	戶當收入	被雇傭者一人當	人 口 增 減 率
		單位：名	單位：百萬元	單位：원	就業人口比				
서 울	1,568,746	131,385	83,752	1.12	3.84	—	—	98	1.6
京 畿	2,359,558	97,616	43,170	52.94	1.71	—	605,421	79	1.006
忠 北	1,191,268	45,103	37,861	67.29	1.02	—	355,400	104	1.19
忠 南	2,220,895	82,518	37,155	64.16	1.40	—	422,723	18	1.24
全 北	2,124,521	85,724	40,350	69.22	1.13	—	415,697	62	1.16
全 南	3,126,377	129,491	41,419	75.09	1.09	—	362,543	63	1.16
慶 北	3,361,346	146,876	43,696	61.25	2.30	—	462,639	57	1.2
慶 南	3,765,119	164,999	43,823	49.74	1.95	—	366,739	409	1.33
江 原	1,495,755	54,086	36,160	58.46	2.29	—	401,168	76	1.43
濟 州	288,801	9,340	32,341	96.68	1.01	—	—	40	1.1
合 計	21,502,386	947,137	平均44,048	平均 56.01	平均 1.81	—	平均 422,269	平均 76	平均1.23

1955年度道別國民總生產額推計의 試案에 依하면 先進地域과 後進地域間에 相當한 格差가 存在함을 發見할 수 있다. 全國 最下位의 道인 濟州島는 一人當 國民所得이 年平均 3萬2千3百41환으로서 全國 平均의 約 73%이며 全國最高位의 首都서울에 比해서 約 83%란 水準에 不過하다. 地域的으로 보아서 所得格差가 顯著한 地域은 江原道(全國平均에 比해서 82%) 忠淸南道(同 84%) 忠淸北道(同 85%) 全羅北道(同 85%) 京畿道(同 93%) 全羅南道(同 93%) 慶尙北道(同 90%) 慶尙南道(同 99%)의 各地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서울 하나를 除外하고는 各道가 모두 平均所得에 未達함을 發見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서울이 어느 程度의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가를 推測하고도 남음이 있다.

世界的으로 有名한 地域의 格差를 가지는 伊太利의 境遇는 1957年 現在의 南部에 있어서의 一人當所得은 伊太利全土平均의 55% 中北部의 44%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道別所得格差는 一部の 特定地域을 除外하면 後進

地域의 全國平均에 對한 所得水準의 格差는 70~80%程度로 認定되며 伊太利 같지는 않으나 어느 程度 相當한 所得格差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 以後에 있어서의 地域間所得格差의 變化에 對해서는 現在 資料의 制約에 依해서 遺憾스럽기는 하나 統計의 把握이 困難하다.

다음에 後進地域을 表示하는 하나의 指標로서 就業者總數中 第1次産業就業者의 構成비가 높은 地域과 反對로 第2次産業就業者의 構成비가 높은 地域과 反對로 第2次産業就業者의 構成비가 낮은 地域을 檢討하여 보면 就業者總數에서 第1次産業就業者가 占하는 比率이 높은 地域은 濟州島(96.68%) 全羅南道(75.07%) 全羅北道(69.22%) 忠淸北道(67.29%) 忠淸南道(67.16%) 慶尙北道(61.25%) 江原道(58.46%) 京畿道(52.94%) 서울(1.12%)의 順으로 되어 있고 또 第2次産業就業者의 構成비가 낮은 地域은 濟州島(1.01%) 忠淸北道(1.02%) 全羅南道(1.09%) 全羅北道(1.13%) 忠淸南道(1.4%) 京畿道(1.71%)等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본다면 就業構造의 形態에 있어서 第1次産業의 比重이 높은 地域은 大體로 低所得地域이라고 判斷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所得格差別로 본 地域의 順序와 就業構造에 있어서 後進性이 높은 地域과의 順序는 반드시 一致하는 것이 아니라는 點이며 그의 不一致를 招來하는 要因의 하나는 農業生産性에 있어서의 地域間格差의 存在라고 생각된다.

1961年度의 農業戶當收入으로써 이를 農業生産性의 指標로 보면 忠淸北道와 全羅南道 慶尙南道는 大略 全國平均에 比해서 約 84~85%臺가 되며 이들 地域은 農業生産이 支配的인 比重을 가지며 그의 農業生産性이 低位에 있음으로써 顯著한 所得格差가 發生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또 人口1人當工業生産(附加價值額)의 地域配分을 보면 所得格差가 激甚한 濟州島 江原道 全羅南道 全羅北道 등이 全國平均에 比해서 매우 低位에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보면 所得格差의 程度와 工業化의 程度는 大體로 一致한다고 해도 無妨할 것이다.

끝으로 最近의 傾向으로서 가장 注目할만한 것은 後進地域으로부터 先進地域으로의 人口의 流出이 매우 激甚하다는 것이다. 統計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所得格差가 甚한 濟州島 京畿道 全羅南道 忠淸北道 등에서의 人口增加率은 低位에 있는데 反해서 過去十年間에 서울의 人口는 1.6倍를 爲始해서 釜山 大邱等과 같은 大都市로의 人口集中傾向을 發生케 하고 過大都市問題에 큰 壓力을 加하고 있다. 同時에 後進地域에 있어서는 人口減少에 依한 相對的인 1人當所得水準의 增大가 所得格差擴大阻止要因으로서 作用하는 事情을 無視할 수 없다.

(B) 地域別所得階層

地域別 卽 各市道別 所得階層에 關하여는 仔細한 것은 省略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重要한 몇가지 現象만을 敘述하기로 한다.

첫째로 各市道の 所得階層中 가장 比重이 큰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서	울	40萬환~50萬환階層	16.8%
京	畿	20萬환~50萬환	18.6%
江	原	20萬환~30萬환	27.8%
忠	北	20萬환~30萬환	31.2%

忠	南	40萬환~50萬환	14%
全	北	20萬환~30萬환	24.1%
慶	北	20萬환~30萬환	22.3%
慶	南	20萬환~30萬환	21.3%

忠南에서 40萬환~50萬환階層의 世帶가 많은은 標本을 主로 大田市에서 얻은 關係이므로 多少 考慮할 餘地는 있으나 大體로 各道の 所得階層이 年額 20萬환~30萬환線에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شم」에서 推計한 우리나라 道別國民所得의 順序와는 大體로 恰似하다.

둘째로 地方에 갈수록 所得의 分布가 不均衡하다. 이제 總所得累計 約 50%線까지에 介在되어 있는 世帶의 比率를 보면 大體로 다음과 같다.

서	울	53.2%線-76.5%(總世帶의)
京	畿	53.5% -75.3% "
江	原	49.4% -70.3% "
忠	北	55.8% -75.4% "
忠	南	52.6% -76.0% "
全	北	53.7% -76.9% "
全	南	56.8% -79.6% "
慶	北	55.8% -80.8% "
慶	南	57% -81.6% "

같은 總所得累計의 53.5%~53.7%線에서도 京畿道보다 全北의 世帶比重이 76.9%-75.3%=1.6%나 많고 같은 55.8%線에서도 忠北보다 慶北이 80.8%-75.4%=5.4%나 世帶比重이 많다. 全南과 慶南은 京鄉地方과 直接 比較는 안되나 間接的으로 京畿道를 基準으로하여 相對的으로 그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II 勞動의 地域構造

(A) 地域別規模別格差

生産從業員의 勞賃은 全國平均을 2,671환 23錢으로서 最高는 江原道の 4,276환 67錢으로서 부터 最低는 全北의 2,067환 68錢으로서 그의 地域別格差가 매우 激甚함을 發見할 수 있다.

한편 全國平均勞賃의 規模別格差를 보면 30名~49名 規模에 있어서의 2,611환 66錢으로부터 規模의 增大에 따라서 勞賃도 增加하여 500名以上の 規模에 있어서는 4,366환 54錢으로서 이것 亦是 엄청난 格差를 들어 내고 있다. 大企業에 比하면 中小企業의 生産性은 낮은 것이 豫想됨으로 이러한 低生産性을 反映하여 中小企業의 勞賃水準은 낮다는 一般的인 事實을 立證하고 있

地域別規模別生産從業員勞賃 (1人月平均)(單位: 錢)

規模別 地域別		E 30~49名	F 50~99名	G 100~199名	H 200~499名	I 500名以上	平 均
서울	울	3,523.13	3,727.30	3,954.73	2,958.72	3,969.63	3,699.21
京畿	畿	2,872.54	3,081.30	3,570.75	4,175.08	4,936.94	3,378.85
忠北	北	1,811.33	2,929.51	2,103.22	2,738.23	979.10	2,367.79
忠南	南	2,103.19	2,381.67	1,582.18	3,889.46	3,484.46	2,349.93
江原	原	2,621.17	3,257.10	3,629.41	4,628.97	7,470.11	4,276.67
慶北	北	2,467.02	2,931.43	2,412.79	2,355.39	4,247.53	2,693.96
慶南	南	2,400.78	2,028.72	2,652.08	2,808.53	3,192.11	2,428.49
全北	北	2,176.23	1,302.48	3,678.09	1,202.14	—	2,067.68
全南	南	2,123.46	3,743.48	2,337.42	2,517.14	4,621.92	2,724.52
濟州	州	2,307.48	—	4,437.89	—	—	2,840.08
全 國 平 均		2,611.66	2,920.08	3,102.56	3,427.49	4,366.54	2,971.23

資料: 生産性研究 第10輯

는 것이라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에 屬하는 從業員 百名未滿의 規模 E와 F에 있어서는 全國 平均보다 낮은 反面 大企業으로 分類되는 從業員 百名以上の 規模 G와 H 및 I에 있어서는 平均額을 上廻하고 있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全國平均勞賃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規模別格差의 特徵은 地域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卽 上記表에 依하면 各地域마다 事業體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서 勞賃도 增加한다는 一般의 傾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規模가 큰 事業體라고 해서 반드시 적은 事業體보다 勞賃水準이 더 높다는 結論을 낼 수는 없을 것 같다. 서울市와 京畿道를 除外한 모든 地域에 있어서는 큰 적은 비록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이와 같은 事實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가장 뚜렷하게 反映하고 있는 例로서는 忠北과 같은 地域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境遇의 勞賃은 事業體規模의 增大에 따라서 拋物線을 그리며 上向하는 趨勢曲線으로 表示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事實과 아울러 地域別로 본 規模別格差에서 나타나는 다른 하나의 特色은 地域에 따라서 規模別格差의 幅이 아주 다르다는 事實이다. 卽 地域에 따라서는 各規模別勞賃의 平均勞賃으로부터의 偏差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前者의 代表的인 例가 江原道이며 後者의 境遇는 서울이 이에 該當한다고 할 것이다. 江原道の 地域別勞賃水準이 가장 높다는 事實을 規模別

로 分析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規模別特色에서 그의 原因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본다면 一般의 事業體의 規模의 크기는 勞賃水準에 相當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推論이 絕對的인 妥當性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地域에 따라서는 規模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勞賃이 높은 것은 아니며 또 規模別格差의 幅도 매우 多樣的인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規模別分析만으로는 이를 充分히 說明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이것의 보다 明確한 原因을 究明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地域別業種別格差를 分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B) 地域別業種別格差

下記表에 依하면 全國平均 勞賃의 業種別格差는 土砂石採掘業의 1,552원 5錢을 最低로 하여 最高는 煙草製造業의 6,045원 89錢에 이르기까지 거의 400%에 가까운 格差의 幅을 보여주고 있다. 換言하면 各業種別勞賃의 平均勞賃으로부터의 偏差가 規程別勞賃의 境遇에 比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業種의 相異가 勞賃水準에 끼치는 影響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端的으로 立證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業種은 煙草製造業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政府의 獨占的인 專賣事業이라는 見地에서 特例라고 보겠다.

다음으로는 第1次金屬製造業과 皮革 및 皮革製
 品製造業이 4,000원臺를 넘고 있으며 이밖에 石
 炭과 金屬鑛業 飲料品 製造業 印刷出版業等과 產
 業分類符號35,36,37,38로 表示되는 金屬 및 機械
 工業部門은 勞賃水準이 높은 部門에 屬하고 있다.
 全體로 이들 業種은 資本集約의인 高度의 生産
 技術과 從業員의 熟練勞動을 要함으로써 從業員
 의 勞動生産性이 一般의으로 높다는 共通性을 갖
 고 있는 듯 하다.

한편 이와는 反對로 勞動集約의인 生産技術과
 從業員의 單純手工業勞動이 生産過程의 主要部

分을 차지함으로써 不熟練勞動者나 혹은 女子 및
 年少從業員이 主로 많은 業種에 있어서는 그 勞
 賃이 平均水準을 下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 業種에 있어서는 그 만큼 從業員의
 勞動生産性이 낮다는 것이 그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下記表에서 나타나고 있는 鑛
 業에 있어서는 土砂採掘業이나 製造業에 있어서
 家具 및 裝備品製造業의 勞賃水準이 最低水準을
 보여 주고 있다는 事實은 勿論이고 紡織業의 勞
 賃이 亦是 낮다는 事實等도 그 代表的인 實例라
 고 하겠다.

地域別業種別生産從業員勞賃 (一人平均) 單位: 錢

地域別 業種別	서울	京畿	忠北	忠南	江原	慶北	慶南	全北	全南	濟州	全國平均
石炭鑛業	4,154.88	—	3,104.68	2,362.48	4,374.76	3,103.08	—	—	—	—	3,852.47
金屬鑛業	7,279.67	—	2,233.61	4,617.09	—	5,030.11	2,257.57	1,763.15	4,531.39	—	3,771.79
土砂石採掘業	—	—	—	—	—	—	1,131.14	1,193.87	—	—	1,152.05
其他非金屬 鑛業及採石業	—	4,090.90	3,224.83	—	—	2,393.35	—	2,173.97	—	—	2,877.78
鑛業平均	6,238.07	4,090.90	2,823.08	3,435.37	4,374.76	3,187.67	1,806.79	1,813.62	4,531.39	—	3,532.38
食料品製造業	3,477.34	4,883.90	807.63	3,844.54	—	651.11	3,415.38	3,037.63	4,112.77	2,840.08	3,160.91
飲料品 //	5,863.86	—	—	2,465.10	—	2,136.35	2,524.94	4,922.92	—	—	6,045.89
煙草 //	6,045.89	—	—	—	—	—	—	—	—	—	6,045.89
紡織業 //	2,600.49	2,325.80	1,378.48	1,320.83	1,348.26	2,640.68	2,099.00	1,497.23	2,392.36	—	2,271.28
靴類, 衣服類 及其他織物製 品, 製造業	2,246.65	5,355.05	—	—	—	5,552.36	2,583.51	862.42	—	—	2,900.12
木造 및 木조 品製造業	2,842.91	3,367.98	—	—	—	1,140.00	2,771.16	1,180.08	—	—	3,120.63
家具 및 裝備 品製造業	2,000.00	—	—	—	—	—	2,242.93	1,782.35	—	—	2,568.10
紙類製造 및 紙 類製品製造業	3,046.80	—	—	—	—	—	—	—	—	—	3,808.77
印刷業, 出版 業 및 同類似 業	4,212.77	2,339.28	—	1,434.21	—	4,419.20	—	—	—	—	4,244.42
皮革 및 皮革製 品製造業	3,471.76	1,035.79	—	—	—	1,247.21	2,671.37	—	—	—	2,658.28
皮革製品, 製 造業	3,735.00	2,481.11	—	—	—	1,712.49	2,442.90	—	—	—	2,645.30
化學化學製 品製造業	3,818.92	3,048.52	1,126.80	791.08	2,986.05	876.25	2,147.35	954.40	—	—	—
石油 및 石炭製 品製造業	2,697.41	3,984.02	—	1,746.95	4,339.01	3,160.25	4,069.24	—	2,247.84	—	3,017.32
非金屬鑛物製 造業	4,610.30	2,859.54	4,843.43	2,745.63	2,040.39	5,075.89	1,916.71	2,930.50	2,092.18	—	2,928.08
第1次金屬製 品製造業	3,554.93	4,347.20	—	—	14,667.8	—	1,711.26	—	1,621.10	—	4,484.82
金屬製品製造業	4,389.56	3,208.15	—	2,728.60	—	2,492.06	3,324.67	2,000.00	2,636.16	—	3,408.32
機械製造業	4,013.83	3,839.87	—	2,169.19	—	2,679.47	3,537.89	—	1,780.48	—	3,389.54
電氣機械器具 裝置製造業	3,743.87	3,415.30	—	—	—	—	3,340.69	—	2,006.17	—	3,391.06
輸送機械器具 製造業	4,188.88	3,933.09	—	—	—	2,412.36	2,938.87	1,712.19	3,906.19	—	3,216.56
其他製造業	2,973.24	2,028.38	—	1,460.41	—	1,929.80	1,516.93	2,009.16	—	—	2,037.54
製造業平均	3,611.67	3,365.90	2,003.56	1,835.78	4,055.99	2,642.89	2,466.85	2,125.43	2,511.94	2,840.08	2,882.63
平均	3,699.21	3,378.85	2,367.79	2,349.93	4,276.67	2,693.96	2,428.49	2,057.68	2,724.52	2,840.08	2,971.23

또한 이들 두가지 類型의 業種間에는 前者는 主로 生産財産業에 屬하고 後者는 消費財産業에 屬하고 있다는 다른 하나의 特徵을 찾아 볼수 있을 것이다. 何如튼 業種間에 있어서의 從業員의 勞動의 質의 內容과 勞動의 質의 構成이 生産性的 格差를 通해서 勞賃水準의 業種別格差를 現象의 으로 具體化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事實을 反映하여 勞賃水準이 높은 鑛業이나 機械工業 等の 業種이 集中的으로 分布되어 있는 江原道나 서울시 및 京畿道の 勞賃이 높은데 對해서 反對로 이러한 諸種의 分布가 比較的 적은 全北이나 忠南北에 있어서는 勞賃水準이 一般的으로 낮은 事實이다. 따라서 地域別 勞賃의 格差는 첫째로는 그러한 두 가지의 類型의 產業이 어느 地域에 어떻게 分布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性格이 規定될 것이며 다음으로는 이미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그 地域의 主要産業의 規模의 크기에 따라서 그 樣相을 달리할 것이다. 換言하면 勞賃水準은 第1次的으로는 그 地域의 主要産業의 業種과 第2次的으로는 그 産業의 規模의 크기에 따라서 커다란 影響을 받고 있다는 事實이다.

結論의 으로 地域間의 所得格差를 發生시키는 一般的인 要因으로서는 農業生産性和 工業生産性과의 사이에 顯著的한 格差가 存在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工業發展의 不充分한 地域에 있어서는 所得水準의 上昇이 停滯된다. 또 그 뿐만 아니라 農業部門으로부터 工業部門에로의 人口의 流出이 充分히 行하여지지 않고 農村의 過剩人口를 가지고 있는 것이 地域間의 所得格差를 發生시키는 主要한 要因이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地域格差를 發生시키는 一般的인 要因들은 現在 우리 나라와 같은 後進地域에도 그 대로 妥當되는 것이며 各地域은 地域대로 各己 特有한 事情이 있다고는 하나 大概 一般的으로 農業生産이 支配的이고 工業化가 遲延된 地域일 수록 所得水準의 格差가 激甚하다고 할 수 있다. 또 最近의 動向에 注目한다면 地域間의 所得格差를 發生시키고 있는 要因에 對해서 若干의 重要한 變化가 發生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그 中の 第1은 後進地域으로부터 先進地域으로의 人口流出은 過去에 찾아 볼 수 없을 程度의 急

速한 速度로 進出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都市의 勞賃水準이 地方의 그것을 上廻한다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先進地域의 企業이 後進地域의 勞動力을 要求하고 이를 吸收할 能力이 增加할 事情에도 基因할 것이다.

第2의 變化는 工業投資의 흐름 自體에 地域의 인 變化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工業地帶는 이미 用水 用地에 있어서 飽和狀態에 達하고 그 위에 土地價格의 高騰 用水의 入手가 困難化되어 이런 事情을 反映하여 最近 이 工業投資의 흐름은 既存工業地帶의 周邊部에 다시 內陸部 乃至 工業地帶相互의 連絡回廊部로 그의 方向을 變更시키고 있다. 특히 鐵鋼 石油 化學 等の 大規模用地 大量用水型 工業投資는 그의 所要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는 適地를 求해서 既存工業地帶와 關聯없이 새로운 工業基地를 求하는 傾向이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地域間所得格差를 招來하는 諸要因中 勞動力의 流出과 工業投資의 地域的 흐름의 二要因이 現在 크게 變化하고 있다는 事實은 地域間所得格差의 樣相이 域地的으로도 또 그의 一般的 性格에 있어서도 이미 從來와 相異한 條件下에 있음을 表示하는 것이다.

② 産業面

I 農業의 地域構造

韓國의 人口는 35年間에 巨한 日本의 統治期間에 1.94倍로 增加하였으며 如斯한 顯著的한 自然增加率은 日本을 凌駕하였을 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도 最高位에 있었다. 그러나 李朝時代의 韓國의 人口는 全的으로 停滯的이었을 뿐만 아니라 減少할 때도 있다. 여기서 日政時의 如斯한 顯著的한 人口增加는 善政의 象徴으로서 宣傳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宣傳은 그대로는 肯定도 否定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日本의 韓國統治가 世界植民地政策史上 如何한 段階에서 行하여졌는가를 생각하면 明白해진다. 그리하여 日本帝國主義統治期間中에 韓國經濟는 産業革命을 經過하고 韓國史上 過去에 볼 수 없었던 前進을 遂行했다.

韓國의 工業化는 第二次世界大戰中에 크게 促進되었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아직 後進의 狀態를 脫出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韓國의 産業別

構成은 1942 年에 農業人口比率이 67%를 示顯하고 있으며 이것은 日本의 明治末年의 狀態에 該當한다. 따라서 人口의 都市集中의 過程도 外國에 比하면 一層 遲延되었고 그 當時의 2千6百萬의 韓國國民은 人口 10萬 以上の 都市를 不過 10個를 保有함에 不過하고 首都인 서울市에서만 韓國人 만으로서는 百萬臺에 未達했다. 그럼으로 21 個의 人口 5 萬 以上の 都市人口의 總人口에 對한 比率은 12.7%(1942 年)에 不過했다. 勿論 韓國의 人口는 最近에 이르러서 急速히 都

市集中化에 로의 傾向을 밝아 왔지만 韓國解放 以前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의 人口는 各地方의 耕作面積에 對해서는 日本의 境遇보다도 一層 平均的으로 分布되어 있었다. 그 나라의 産業構造가 農業國인 境遇에는 工業國의 境遇와 같이 産業別地域的 分業은 보이지 않고 또 普通 農產物의 巨大消費中心地(大都市)가 存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國民國權의 農業地域에 있어서는 全國的 規模로서 「츄우넨」構造를 識別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깝다고 해도 좋다.

韓國의 耕地當人口(人/SDT 1940年)

京畿	忠南	忠北	全北	全南	慶南	慶北	江原	黃海	平南	平北	咸南	咸北
12.0	6.6	6.1	7.0	6.5	8.9	6.8	5.3	3.5	3.5	4.7	4.8	5.6

따라서 여기서 보여지는 「츄우넨」構造는 一層 좁은 地方 및 地區에 있어서의 地域的 分化단임에 不過하다. 여기서 「츄우넨」의 原理가 妥當키 困難하여짐에 따라서 그 나라의 農業에는 만 條件의 影響力 卽 氣候라든지 地形 等の 自然的 條件의 影響力이 漸次로 強하게 出現한다.

韓國에 있어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人口의 大多數가 田園에 居住하나 地方別耕地當人口를 보면 그의 一大特徵은 南韓에서의 人口의 稠密한 密度와 北韓에서의 疎散한 密度와의 對照로서 그의 境界線은 偶然的으로 戰後의 分割統治의 境界線인 北緯 三八度線과 一致한다. 耕地當人口에 關해서 京畿道는 政治的 中心地이기도 하며 有力한 商工業地帶이기도 해서 다른 地方에 比해서 稠密하다. 要컨대 우리 韓國은 南北으로 길게 펼쳐진 半島로서 그 兩斷의 氣候의 差異는 顯著하므로 溫暖한 南部에 있어서는 土地에 從事하는 사람의 數가 많아지는데 對해서 寒冷한 北部에 있어서는 그것이 許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氣候의 差異는 南部가 海洋中으로 突出하고 北端이 大陸과 接觸함으로써 擴大되어 있다.

우리가 韓國의 農業地域全體의 性格을 明白히 하기 爲해서 主要穀物生産額을 基準으로 해서 各種 農產物生産額의 比率을 求하는 方法에 依해서 이를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農產物種類別 生産價額의 比率

主要穀物	雜穀	蔬菜	纖維原料	果實	蠶繭
1109百萬환	28.6	9.9	5.8	3.2	4.2

(註) 主要穀物生産價額을 100으로 하는 各種 農產物 生産價額의 比率 1940年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精穀에 對한 雜穀의 比重은 日本全體의 平均보다 크며 蔬菜 및 果實의 比率은 低位이다. 그리하여 棉花 亞麻 大麻와 같은 纖維原料品만은 日本에 있어서의 工藝 農產物全體의 比率과 大體로 同一하므로 其他의 煙草等의 原料品을 加하면 韓國에서의 工藝 農產物의 比率은 日本의 境遇보다도 一層 높다. 그리하여 耕地面積當의 收益은 日本과 比較하면 훨씬 低位이다. 이와 같이 보면 韓國의 農業은 「츄우넨」構造에 있어서는 一層 外圍의 性格을 가진다.

韓國農業의 外圍의 性格은 他面 農產物의 輸出入關係에도 나타난다. 國民經濟의 産業構造에 있어서 農業이 支配的이라고 해도 主要穀物인 米穀은 重要한 輸出品으로서 每年輸出하지 않으면 안되는 韓國으로서는 決코 餘裕 있는 農業國은 못된다. 그리고 또 工業的 後進性 때문에 韓國의 土地는 世界的으로 매우 稠密한 部類에 屬하는 人口를 扶養하기 爲해서 相當히 酷使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韓國의 農業이 日本의 境遇에 比較해서 一層

外圍의 性格을 가진다는 것은 또 그의 經營方法에서도 發見된다. 韓國의 畚中에는 人工灌溉가 行하여지지 않은 데가 적지 않으며 이것을 天水畚이라 하여 自然降雨를 기다려 移秧을 한다. 따라서 旱魃의 農業生産에 미치는 影響은 日本의 境遇에 比해서 훨씬 크며 또 韓國에 있어서는 가장 原始的인 農耕法인 燒田移動耕作을 行하는 火田民이라고 呼稱되는 農民까지도 적은 數이긴하나 存在한다. 그 結果 面積當收穫量도 例를 들면 小麥이나 馬鈴薯 等に 있어서도 日本에 比해서 顯著히 적다. 이 적은 收穫量의 原因은 低位의 文化水準과 低劣한 技術에서 求하여 지나 高度의 經營方式의 採用을 沮止하는 條件의 根底는 一層 頑強한 바 있다. 그러나 이 韓國에 있어서의 農業도 極東의 殘餘의 諸國에 比較하면 어느程度 巧妙히 土地를 利用하는 部類에 屬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點에서 韓國의 農業도 高度勞動集約型의 範疇에 屬하고 農業勞動의 生産性은 極度로 低位이다. 따라서 總體的으로 如

斯한 性格을 가지는 韓國農業의 地方的 特徵을 考察하면 大體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使用하는 農產物生産量의 統計는 各種의 農產物에 對해서 各各 相異한 單位로서 表現되어 있으므로 地域別로 各種 農產物의 重要性을 求하는 것은 不可能하고 여기서 새로운 方法에 依據하여 卽 各種 農產物의 全國의 總生産量에 對해서 各 地方이 如何한 比重을 가지는가를 調査하고 이들을 相互比較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엥겔부레히트」나 「베쇼트나」의 方法과도 全的으로 相異하다. 이 方法에 依하면 農業이 繁榮하는 地方的 重要性은 強調되나 各地方 内部에 있어서 如何한 種의 農業이 가장 支配의 이나 하는 點은 어느 程度 曖昧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但只 各種 農產物에 關한 地方的 比重을 比較함으로써 地圖上에 一律的으로 表現할 수는 없으나 各 地方的 農業의 特徵을 記述的으로 把握할 수 있게 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에서의 耕地面積當의 人

道別穀類生産量對比

(單位：精穀石)

道	別	米	穀	麥	類	雜	穀	豆	類	薯	類	合	計
서	울	36,948		3,472		129		1,220		1,990		43,759	
京	畿	2,647,297		567,896		71,241		190,165		162,696		3,639,297	
忠	北	998,049		465,388		54,450		112,884		124,353		1,755,124	
忠	南	2,321,690		684,723		26,416		160,682		153,141		3,346,652	
全	北	2,378,083		822,920		26,451		94,596		241,085		3,563,135	
全	南	2,701,343		1,538,853		62,707		143,096		284,170		4,730,169	
慶	北	2,046,097		1,458,455		85,706		160,271		140,931		3,891,460	
慶	南	2,088,887		1,304,793		34,851		110,987		146,188		3,685,706	
江	原	712,488		155,775		139,142		115,837		138,497		1,261,739	
濟	州	18,589		209,146		80,860		11,115		176,990		496,700	
合	計	15,949,473		7,211,421		581,953		1,100,853		1,570,041		21,413,741	

資料：農業年鑑 1961年初版

口는 南韓이 稠密하고 北韓은 疎散하다. 그리고 特히 人口의 密度가 稠密하고 農產物需要가 強한 것은 京畿道와 慶尙南道이다.

主要穀物과 雜穀의 重要한 生産地는 前者에 있어서는 全南北, 忠南, 慶南北, 京畿道 等이며 後者에 있어서는 江原道, 慶北, 濟州島 等地로서 어느 程度 位置의 關係에 있어서 分化하고 있는 것으로 生覺된다. 麥類生産에 있어서는 全南과 慶南北이 頭角을 나타내고 있으며 1962年度 麥

類作付面積은 961千町步로서 地域別로는 慶北의 206千町步가 最高이고 다음은 全南의 179千町步, 慶南의 143千町步, 全北의 112千町步, 忠南의 105千町步의 順序로 되어 있으며 餘他道는 모두 10萬町步 未滿이다. 農牛의 飼育에 있어서는 濟州島, 江原道, 慶南, 慶北 等 中央에서 멀리 떨어진 地方에서 活潑히 盛行하고 있고 工業原料인 棉花와 亞麻의 栽培에는 氣候가 가장 強한 影響力을 가지고 있고 前者는 南西部地方에 活潑

히 行하여지고 後者는 江原, 慶北, 京畿의 一部 山間地帶에서 栽培되고 있음에 不過하다.

韓國의 蔬菜生産(1960年度作付面積 11萬 74町步 2億 94萬貫)의 가장 著名한 地帶는 京畿道 周邊(白菜) 慶南(白菜) 京畿(오이) 忠南(호박, 가지) 等地이며 모두 大都市 30 乃至 80 秆의 距離內에 있다. 生産地方으로부터 消費地方으로의 出荷豫定量을 보면 京畿道에 對한 忠清道이며 比較的 耐久性이 강한 種目的 蔬菜에 對해서는 어느 程度 遠隔의 地方 卽 江原道 全羅南道 등이 重要한 出荷地方이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韓國과 같은 農業國에 있어서는 農業地域의 「츄우넨」의 分化를 發見한다는 것은 매우 困難한 것이며 그 나라의 農業에는 自然的 條件의 意義가 特히 強하게 出現한다. 卽 韓國에서의 農産物의 生産은 一層 氣候와 地勢에 依해서 地方的인 特徵을 나타낸다. 우리 나라 米穀의 主産地는 南韓 地方에서 西海岸에 따라서 北上하는 地域이며 粟의 主産地는 米穀 보다도 內陸으로 들어가고 山岳地를 除外하고 全北에서 南韓 地方的 北部로 들어가서 東海岸에 따라서 北上하는 地域이다. 玉蜀黍의 生産地帶는 粟 地帶의 西側에 따라서 平北의 中間部에서 江原道 山岳地에 따라서 南下하고 馬鈴薯는 主로 江原道 以北의 東海岸地方에서 北上하는 地帶에서 生産된다. 麥類에 있어서는 大麥地帶는 中韓 地方的 兩側에서 南韓 地方에 이르고 裸麥은 中韓 地方的 南部 西側에서 南韓 西側을 돌아서 慶南으로 들어오고 小麥은 西北韓의 中部地方에서 中韓의 內陸을 통해서 南韓의 內陸地方에 이르고 燕麥은 北韓 高地를 主産地로 하나 南韓에서는 江原道에서만 栽培되고 있다. 大豆의 生産地帶는 西北韓 地方的 山岳地帶로부터 中韓 地方的 山岳地方 및 東側에 亘하고 北韓 東海岸을 따라서 北上한다. 棉은 南韓 地方에서 中韓, 西韓 地方的 西側 若干 內陸으로 들어온 地方이고 亞麻는 江原 慶北 京畿의 一部 山間地帶에서 栽培된다. 우리가 如斯한 農産의 種類別 分布를 보고 기어이 「츄우넨」의 構造를 求하려고 한다면 海岸地帶에는 比較的 內圈的 農産物이 支配의이고 山岳地帶에 接近함에 따라서 外圈的 農産物이 有力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II 工業의 地域構造

(A) 韓國工業의 構造의 性格

韓國이 急速히 工業化한 것은 極히 最近에 있어서이다. 1920년에 赴戰江 水力發電이 完成함으로써 新方式에 依한 「에너지」 資源開發의 可能性이 賦與되었다. 이 可能性이 1930年代의 日本軍國主義計劃經濟에 依해서 着眼되고 韓國의 工業化는 強力히 推進되었다. 經濟政策으로서 農工併進이 主張되었고 工業生産力의 增大는 農業生産力의 增大보다도 統計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層 優勢했다. 1931년에는 全生産額의 四分의 一에 不過했던 鑛工業生産은 解放直前의 韓國經濟에 있어서는 그의 生産力의 過半을 占하기에 이르렀다.

韓國産業別生産額 및 그의 百分比 (單位: 百萬圓)

年 度	1931	1939	1943	1941과1943의 對比
農 業	637 (60)	1,598 (40)	2,097 (32)	3.1倍 4.8倍 4.5倍 7.8倍
畜産業	29 (3)	96 (2)	138 (2)	
水産業	77 (7)	327 (9)	349 (5)	
林 業	59 (5)	192 (5)	462 (2)	35.7倍 10.7倍
鑛 業	21 (2)	240 (6)	750 (12)	
工 業	252 (23)	149 (38)	2,689 (42)	
計	1,114(100)	3,902(100)	6,485(100)	5.9倍

그러나 韓國의 經濟社會構造는 그럼에도 不拘하고 工業化의 程度가 아직 一層 後進의인 性格을 露呈하고 있다. 이를 韓國人口의 産業別 構成에서 보면 工業人口는 總人口의 7%弱으로서 이것에 鑛業人口를 加算해도 9%弱에 不過했다. 但 이의 2.1%란 鑛業人口의 比率은 注目할만하며 이것은 韓國보다도 工業化가 앞선 日本(1940年の 2%)보다도 若干 크며 또 美國(1939年 2%)이나 캐나다(1931年 1.5%) 보다도 크다. 工業化가 遲延된 國家에 있어서 이와 같이 相對的으로 높은 鑛業人口比率은 韓國이 原料消費國이라기 보다는 原料供給國으로서 機能하는 産業構造의 一特徵으로서 생각된다.

解放直前に 있어서의 韓國工業의 發展의 規模는 滿洲事變 以後의 工業化強力政策에도 不拘하고 世界的으로 보아서 決코 높은 水準의 것은 아니었다. 例를 들면 重工業의 素材를 生産하고 그의 基礎가 되는 製鐵業의 規模에 있어서는 韓

國은 世界總生産의 1,000分の 3, 大體로 第二次大戰前의 「브라질」程度이었다. 그런데 化學工業에 눈을 돌리면 例를 들면 그의 中樞製品인 硫酸의 生産은 훨씬 많고 世界的으로도 屈指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生産量은 戰前의 白耳義 程度이다. 이에 對해서 完成品의 地位는 相對的으로 낮고 輕工業을 代表하는 纖維産業은 韓國 自體의 需要를 充足시키는데 到底히 未及할 程度로 貧弱했고 또 主로 生産手段의 生産部門인 機械工業은 거의 發達을 보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었다. 그러나 韓國에서의 알루미늄工業은 極히 強力히 育成되었기 때문에 世界的으로도 有力한 生産國이 되었으나 크기 程度는 大體로 瑞西에 準하는 程度이었다.

解放前의 韓國工業에 對해서 注目하지 않으면 안될 點은 以上과 같은 發達의 水準 그 自體에 있다가 보다는 多리혀 工業諸部門別構成의 特異性에 있는 것이다. 卽 韓國의 工業品生産統計가 表示하는 바와 같이 例를 들면 硫酸의 生産量이 鋼鐵의 그것의 6 倍에 가깝다는 關係(1938年 獨逸에 있어서는 이 關係가 反對로 約 12 分の 1, 蘇聯邦에서는 13 分の 1)에서도 곧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韓國에 있어서는 化學工業의 比重이 다른 工業諸部門 보다는 極히 큰 것이었다. 이러한 化學工業品에 알루미늄 및 마구네슘 鉛 亞鉛 等の 精鍊을 添加해서 생각한다면 韓國工業諸部門中의 根幹은 電機化學工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如斯한 韓國工業의 特異性은 工業諸部門別 勞動者數의 比率이 再確認케 한다. 解放前 化學工業部門 勞動者數는 諸部門 中에서 紡織工業에 이어서 第 2 位였으나 工業勞動者數 全體의 18%라는 比率은 日本의 그의 比率(6.3%—1942年)의 2 倍 以上에 該當하며 其他의 如何한 先進工業國 例를 들면 美國 英國 獨逸 等の 標準(大體로 4 乃至 8%)보다도 훨씬 超過해 있었다. 化學工業에 있어서의 高度의 勞動生産性에 비추어 보면 化學工業이야말로 韓國工業에서 가장 重要한 位置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以上을 要約하면 解放前 韓國工業의 重點은 特殊金屬精鍊工業을 包含해서 電氣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素材品 或은 半製品生産에 있던 것으로서 그것은 또 工業生産統計에서 明示된 바이다. 解放은 우리

나라 從屬經濟로부터 自主獨立經濟에로의 轉換이어야 할 것인데 解放으로 因하여 以前에 形成된 畸型性으로 말미암아 日本資本에 對한 從屬으로 겨우 命脈을 維持한 韓國工業은 그의 命脈維持의 可能性마저 斷切되어 버렸다. 日本工業에 對한 植民地的인 基礎 素材生産部門은 完全히 市場이 斷切되었다. 會社投資의 99%를 占하던 日本資本과 技術者 8,476 名中 80%를 占하던 日本 技術者들이 總退進한 結果 工業生産力은 決定的인 破綻을 免치 못하게 되었고 이것마저 國土兩斷으로 單一國體制는 兩極으로 分裂되어 南韓은 地下資源과 動力資源 및 工業爲主의 北韓을 喪失함으로써 그 畸型性은 더욱 加重되었다.

그러나 1949年부터는 斷切된 動力事情이 多少 好轉됨과 同時에 治安 및 流通秩序가 安定되자 우리 나라 工業生産力은 그 量的面으로서 增加하게 되었다. 卽 1949年의 工業生産水準은 前年에 比하여 40%나 上昇하였으며 이 中에서도 纖維工業 化學工業 食料品工業 等の 發展은 注目할 만하다. 그러나 工業施設의 約 30% 程度를 占하고 있던 嶺南地方 一帶만을 除外하고는 動亂中 모두 苛烈한 戰火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工業施設의 破壞는 莫大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 工業生産水準도 또다시 急激히 低下하게 되었다. 卽 1919年을 基準으로 할 때 工業은 2,602 個로서 全工場의 68%가 破壞된 셈이며 그 內容은 建物이 40% 機械設備가 137%이다. 또 生産水準은 1951年에는 1949年의 32%로 減少되었고 그後 戰亂이 膠着狀態에 빠지자 1953年에는 87%로 上昇하였으나 아직도 動亂前 水準에 達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만 纖維工業과 食品工業만이 108%와 101%로서 가장 빨리 復興되었으며 以後에는 이들 部門의 主幹을 이루는 製糖 製粉 釀造 等과 綿紡織工業 毛紡織業 및 化學纖維工業 等 加工業의 發展만이 顯著하여 部門別 不均衡의 發展만이 漸次로 擴大化되어 왔다. 또한 經營構造에 있어서도 動亂前에 5名—99名까지의 工場比率이 94.7%인데 對하여 1952年에는 10名에서 99名까지의 工場比率만도 95.4%로서 더욱 零細化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動亂을 겪은 韓國工業은 重工業과 輕工業의 均衡의 發展云云의 段階에서 다시 後退하여 輕工業爲主의 工業이 되었

으며 이것까지도 또 그 生産力이 減退되어 手工業의 家內工業의인 小規模 乃至 零細工業이 增大하게 되었다.

1953年 休戰과 더불어 經濟復興의 準備條로 莫大한 援助資金 財政資金 및 金融資金이 導入되기 시작하여 1961年現在로 그 總額은 22億8千4百59萬弗, 1945年~61年間의 合計는 31億3千7百30萬弗에 達하였다. 그리하여 投資效果는 投資한 지 2年後인 1955年부터 나타난 셈이다. 卽 1948年에 比한 1955年의 것을 보면 工場總數(5名以上)는 8,161個로서 120.8% 職工數는 211,000名으로서 159.5% 生産額은 2,723,2百萬원으로서 576.2%씩 各各 增加하였으며 部門別로도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大略 發展하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發展한 工業도 消費財部門에 過剩業種이 出現하고 生産財生産部門은 生産財의 輸入調達이 原則인것처럼 되어 있으므로 工業製品의 市場難이란 새로운 隘路에 直面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工業施設投資는 每年 減少되고 投資效果가 集中的으로 나타났던 1957年의 다음 해부터는 生産指數의 增加가 鈍化되어 1900年에는 그 增加率은 48%에 不過하였다. 그리하여 工業은 過去 數十年間의 急激한 發展에서 轉向하여 이제는 漸次 그 發展速度가 기우러지게끔 되었다.

以上과 같은 過去를 가진 우리나라 工業의 構造의인 性格을 檢討하면 于先 工業의 生産基盤을 形成하는 主要資源 및 公共施設에서부터 概觀하여 보면 工業의 主要資源인 地下資源은 全鑛種數 200餘種이 開發된 바 있었던 鑛種50餘種 主要鑛種 7種으로서 多樣的이나 前述한 바와 같이 國土 兩斷으로 因하여 主要地下資源의 大部分을 喪失하게 되었다. 鐵鑛에 있어서 南韓은 全埋藏量의 不過 0.1%이며 有煙炭 0.5% 無煙炭 2.3% 탄그스텐 및 水鉛鑛 21.5%밖에 안되며 寒心하기 짝이 없다. 有煙炭 鐵鑛 탄그스텐 等 工業의 近代化에 있어서 原動力의 大部分을 喪失하였다는 것은 決定的인 打擊이 아닐 수 없었다. 極히 少量의 鐵鑛採掘量中 그나마도 90%以上을 輸出하고 있다는 事實은 우리나라 工業의 構造의인 矛盾으로서만 解決할 수 없는 問題라고 하겠다. 動力源中 石油生産은 全無하며 電力은 南韓地形의 不利

와 施設不足 等으로 因해서 61年 現在 水力火力 合하여 平均 202,200kw를 出力하고 있는데 이것은 58年 需要量 257,000kw에 約 55,000kw나 未達한 셈이다. 特히 出力構成에 있어서는 經費가 훨씬 高價인 火力發展이 水力發展의 倍가 되고 있으므로 産業全般의 原價를 高率化시키고 있는 셈이다. 農産物中 가장 重要한 工業原料인 原棉 原毛 原皮 小麥 및 原糖 等은 全部 輸入하여야 될 形便이다. 工業構成을 보면 食品工業 化學工業 및 窯業의 比重이 動亂中에 上昇하였으나 經濟復興이 推進됨에 따라 紡織工業 食品工業은 急激하게, 金屬機械工業은 緩慢히 上昇하는 한편 化學工業도 上昇하고 窯業은 緩慢히 低下하여 食品工業을 除外하면 增減傾向이 動亂中과 復興期間中 서로 다른 樣相을 示顯하고 있다. 그러나 生産財生産部門과 消費財生産部門으로 二大別하여 볼 때에는 金屬機械工業이 復興期間中 極히 緩慢하게 上昇하고 있을 뿐이라는 事實을 考慮한다면 工業構造의 根本的特質은 如前히 存在한채 다만 工業部門別消長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958年 現在 工業類基準工業構成을 보면 紡織이 3.66%, 食品이 26.2%, 化學이 11.4%, 金屬이 6.1%, 機械가 5.1%, 窯業이 2.5%이며 紡織食品化學工業은 全體의 75.2%를 占하여 工業의 主宗을 이루고 있다.

(B) 韓國工業立地와 天然資源

韓國工業의 「에너지」供給源으로서 가장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資源은 電力이었다. 發電事業이 最初 火力發展에서부터 始作한 것은 韓國에서도 同一하고 또 1920年初까지는 利用可能水力資源量은 極히 貧弱한 것으로서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流域變更 急落差電力式과 巨大堤防築造에 依한 大水力蓄積法의 成功은 우리 韓國에 놀랄만한 安價한 電力을 豊富히 供給할 수 있기에 이르렀다. 1926年 前者의 방식에 依해서 맨처음으로 送電을 開始한 赴戰江電力系(20萬kw)가 있었다. 繼續 同一한 流域變更急落差方式에 依한 虛川江發電所(22萬kw) 및 長津江發電所(33萬kw)의 建設이 加하여지고 다시 西鴨綠江이 가지는 巨量의 水力에 着眼되어서 1937年 水豐에 써-멘트75萬屯을 投入해서 人造湖에 依한 發電所(64萬kw)가 1941년에 送電을 開始했다.

如斯히 하여 北韓의 水力發展은 第二次大戰末期에는 全韓國의 電力消費의 8割을 充足시키고 各地의 火力發展所(5萬kw)以上の 發電所는 平壤 서울 寧越의 3個所는 大部分 操業을 停止하고 韓國發電總量에 對한 火力은 1割以下가 되었다. 如斯한 北韓電力에 對한 南韓은 漢江水力發電(30萬kw) 蔚津江水力發電 寧越火力發電 等의 小規模 電力系가 存在함에 不過했다.

解放後 韓國은 38線에 依한 國土의 兩斷으로 北韓電力系가 여기서 離脫하게 되었으로써 우리나라 電力體系에 큰 變動을 招來하였으므로 韓國의 地域的 分割에 依한 電力의 出力은 1945年 8月 現在 北韓은 126萬kw이고 南韓은 198,000kw이다. 그나마 發電機의 老朽로 말미암아 平均電力은 必要平均出力의 折半에도 未達하는 32,000kw에 不過했다. 거기다 寧越과 唐人里 및 釜山火力發電所는 老朽하여 補修가 必要하였고 其他 몇개의 小規模水力發電所도 類似한 狀態에 있었다. 美國의 援助計劃은 北韓으로부터 送電中斷이 되던 1948年以來 韓國의 電力事業發電을 爲하여 꾸준한 支援을 繼續해 왔다. 送電中斷과 더불어 南韓은 獨自的인 發電所建設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으며 韓國의 電力事業은 통털어 3萬kw를 가지고 새出發을 한 셈이다.

韓國政府는 于先 1948年度의 越冬不足電力을 確保하고자 最善의 努力을 기우렸으며 釜山·唐人里 및 寧越火力發電所의 復舊工事が 韓國과 美國 두나라의 技術陣의 協助로 이루어졌다. 또한 美軍은 當時 韓國의 深刻한 電力難을 緩和하고자 두隻의 發電船을 導入하여 3萬kw의 電力을 支援하는 한편 木浦에도 6,000kw의 디젤發電所가 建設되었다.

當時의 朝鮮電業會社는 또한 일찌기 日本人이 着手한 바 있었던 蔚津江水力發電所의 工事に 再着手하였다. 이와 같은 緊急對策에 依하여 1951年까지는 推定需要量보다 4萬kw가 不足한 15萬kw의 電力을 確保하기 爲한 計劃들이 作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改善의 努力은 6.25動亂으로 因하여 水泡로 돌아갔다.

6·25動亂을 겪는 동안 電力施設의 戰爭被害는 發電施設이 約40%, 變電施設이 約62% 그리고 送電施設은 約30%나 破壞되었던 것이다. 다만

戰爭으로 因한 한가지 收穫은 華川水力發電所가 休戰後以南에 編入되었다는 것이다. 休戰線이 되자 韓國政府는 電力施設의 復舊工事を 서두렸으며 美國協助가 큰 도움이 되었다. 當時 朝鮮電業會社는 外國技術陣의 도움없이 七寶·雲岩 및 淸平水力發電所와 唐人里火力發電所를 復舊하였다.

한편 UN軍傘下에서 일하던 美國人 電力技術者들은 1953年初 韓國에 돌아왔으며 UNKRA가 電力施設에 280萬弗을 投資하여 1950年度의 水準까지 復舊하려는 工事を 推進하였는데 이 工事에는 韓國의 國內技術陣이 總動員되어 送變電施設改善에 劃期的인 成果를 거두었고 이 工事は 國內技術向上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으로 當時의 美國電力專門家들과 韓國政府 그리고 電力會社 三者는 合同電力委員會를 構成하고 數年後의 電氣成長에 對備해서 電源開發計劃을 樹立했다.

첫計劃인 馬山·唐人里·三陟의 都合 10萬kw, 火力發電所計劃을 爲하여 1954년에 來韓한 美國人建設技術者들은 1956年初 唐人里火力發電所를 竣工시켰고 뒤이어 馬山·三陟이 稼動되었다. 뿐만 아니라 美國은 多額의 援助資金을 投入하여 寧越火力發電所의 復舊工事を 計劃했는데 61年初에 着工된 이工事は 現在 거의 竣工段階에 들어가고 있으며 4臺의 發電機를 補修하고 韓國無煙炭의 效率的 使用을 爲해서 「보일러」들도 다시 設計되었다. 또한 水力發電施設의 補修도 이 計劃에 包含되고 있었는데 華川發電所는 1954年~55年 兩年の 復舊工사와 1957年の 第3號機增設로 8萬kw의 出力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華川下流에 位置하는 淸平水力發電所는 1954年~55年 兩년에 復舊되었으며 1953年度 美國 AID 援助計劃에 依하여 着手된 工事は 38,000,000弗以上에 達하였다. 이처럼 꾸준한 補助工사와 電源의 開發의 成果로 今日的 韓國의 電力施設은 1948年에 比하여 平均出力에 있어서 거의 8倍인 25萬kw로 增強되었으며 앞으로 計劃에 있는 것도 여럿이 있다. 燃料로서의 石炭에 對해서는 韓國에는 有煙炭이 적고 無煙炭이 많다. 따라서 解放前에는 韓國은 有煙炭을 輸入하고 無煙炭을 輸出했다. 특히 如斯한 僅少한 有煙炭은 거의 咸鏡北道에서만 埋藏되어 있으므로 戰後 非正常的인 貿

易狀態下에 있어서는 韓國은 主로 鐵道用炭으로서의 有煙炭을 日本에서 輸入했다. 無煙炭의 全 韓國推定埋藏量의 5 割以上은 平壤炭田이 保有하며 南韓에 있어서는 三陟에 若干 큰 蓄積이 存在할 뿐이다.

여기서 南韓의 道別石炭生産量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石炭總生産量中에서 江原道가 거의 壓倒的인 部分을 占하고 있고 其他道에 있어서는 慶北의 54萬餘噸과 全南의 32萬餘噸을 爲始해서 僅少한 量이 若干씩 生産되고 있을 程度에 不遇하다.

韓國의 工業原料 特히 鑛物資源은 壓倒的으로 北韓에 偏在하고 南韓에 比較的 偏在되어 있는 資源은 螢石 石棉 大麻 程度이다. 以上과 같은 諸條件下에서 韓國工業立地의 分析에서 무엇보다 電力의 吸引力을 크게 評價하지 않을 수 없었다. 安價한 電力을 求하는 日本肥料資本은 北韓에 巨量의 利用可能用水를 發見하고 電力을 多量으로 必要로 하는 工業生産量을 北韓으로 誘致했다. 如斯히 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硫安 카바이트 등의 生産을 爲始해서 알미늄의 精鍊 그리고 銅 닛켈의 精鍊의 境遇에는 外地에서 鑛石을 輸入해서 生産이 行하여진 程度이었다. 또 北韓에 偏在하여 存在하는 鑛物資源은 平南 咸北 등에 製鐵業 電柱工業을, 平南 平北에 마그네슘 精鍊을, 그리고 咸北에 人造石油事業을 立地시켰다. 따라서 北韓에서의 두개의 工業地帶는 그의 基幹의 部門 特히 多額의 電機化學工業生産과 그것과 關聯하는 工業活動이 集積함으로써 構成되어 있다. 이에 反해서 紡織工業은 棉花栽培地附近에 立地하나 鐵道車輛工業은 全韓國交通의 交叉點인 서울 周邊에, 造船工業은 韓國의 門戶인 釜山 및 仁川에 設置하고, 食料品加工 其他 雜工業은 서울을 中心으로해서 各地에 散在되어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豊富한 電力, 特有的 天然資源, 그리고 植民地의 低勞賃이란 諸事情은 日本帝國主義의 大陸으로 向하는 前進基地라는 地理的位置과 合쳐서 韓國의 工業化를 特히 重要視했다. 事實 日本戰時經濟에 對한 韓國工業의 寄與는 決코 적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貢獻이란 電力을 必頭로 해서 韓國特有的 資源(黑鉛,

雲母, 마그네사이트, 重石, 螢石, 鉛, 모리부 덴 등)이란 原料面을 통해서이며 工業 그 自體의 貢獻은 그리 多大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韓國의 工業化는 日本의 統治期間 特히 그 中間以後에 있어서 全的으로 日本資本의 投下에 依해서 行하여졌다. 그리고 그의 大部分이 鑛工業資本이었음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이 資本設備는 解放에 依해서 그대로 韓國에 引繼되었다. 韓國의 工業力은 勿論 日本과는 比較가 안되나 世界的으로 가장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日本의 遺産을 今後 如何히 이를 運營 發展시키는가가 解放後 韓國의 重大한 課題이었다. 그러나 그의 前途는 다음과 같은 事情에 依해서 그리 容易한 것은 아니었다.

첫째는 38線에 依한 國土의 兩斷이다. 韓國國民經濟의 地理的 概觀은 產業別로 보면 北韓의 鑛工業, 南韓의 農業으로 大體로 特徵지을 수가 있다. 또 工業生産案에 對해서도 既述한 바와 같이 北韓에는 素材品 乃至 生産體 그리고 南韓에는 消費體의 比重이 크다. 重要工業施設의 北韓偏在에 關해서 評言하면 重要工業製品別로 1944年을 基準으로 해서 北韓에는 銑鐵 鋼鐵 銅 亞鉛 알미늄 電柱 硝酸 硫安 合成樹脂 人造 고무 人造石油 人絹 등의 全施設과 그 뒤에 마그네슘 카바이트 씨멘트施設의 8 割以上이 偏在한다. 이에 對해서 南韓이 獨占하는 工業生産部門은 造船 工業 鐵道車輛工業 麥酒工業 紡織工業 等만이다. 勿論 戰後 北韓의 重化學工業施設은 相當히 撤去되었다고 傳하여진다. 何如튼 南韓의 機械工業 其他의 完成品工業에 있어서도 戰後 原料 및 其他 資材의 入手困難으로 큰 難關에 逢着했다.

둘째로는 日本技術者의 撤去이다. 解放前 重要 企業體의 大部分은 日人資本家に 屬하여 있었으므로 日本人從業員은 技術로서 또는 從業指導員으로서 活躍하고 있었다.

끝으로 韓國의 人口는 解放當時 2590萬名이 있었으나 戰後 在韓日本人의 撤去後로 在外韓國人의 多數의 歸國에 依해서 總人口는 急速히 約 1 割이 增加하고 1960年 現在 南韓의 人口만도 2499萬名에 達하고 있다. 이것은 一平方杆當 254.1의 人口密度를 意味한다. 따라서 韓國에도 過剩 人口의 現象이 出現하고 우리나라 國民經濟의 生

産力이 總體의으로 低位에 있는 實情과 對比할 때 이 人口를 扶養하는 問題는 日本以上으로 深刻하다. 特히 韓國에서의 農業生産力은 日本統治下의 總督政治의 增強強要政策을 가지고서도 그의 人口를 扶養할 수 없었다. 따라서 韓國의 過剩人口에 雇傭機會를 賦與하고 食糧을 輸入할 必要性에서도 工業의 急速度的인 再建이 要望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의 工業發展水準은 何如든 極東에서는 높은 便에 屬하고 또 特有資源을 背景으로 하는 特異한 工業生産構造를 가지는 故로 韓國工業의 復活은 韓國國民經濟를 爲해서 뿐만 아니라 極東諸國의 復興을 위해서 要望된다.

3. 國土綜合開發의 基本方向

(1) 工業開發의 方向과 地域의 配置

① 工業開發의 基本方向

우리나라의 工業은 旣成大工業地帶의 集積을 中心으로 해서 高度의 成長을 達成하여 왔으며 그 過程에 있어서 이들의 地帶에는 用地 用水 輸送力 等の 立地의 隘路가 顯在化하고 過度密集의 弊害가 發生하여 投資效果의 低下를 招來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一部の 企業은 旣成大工業地帶을 中心으로 한 外延的 立地이고 企業은 消費地 關聯產業 下請企業 等の 存在에 強力히 誘引되면서 그 周邊에 새로운 立地를 求함을 意味한다. 이에 對해서 第2의 型은 良港 또는 良港建設可能地를 中心으로 한 遠心的 立地이고 鐵鋼·石油精製等の 企業이 用水 用地 港灣 等の 自然的 立地條件이 優秀한 地點에 새로운 立地를 求하는 것은 이의 좋은 하나의 例이다. 前者는 一層 集積하려는 旣成大工業地帶의 負荷를 分散시킨다는 意味에 있어서는 有効하나 이를 그대로 放置한다면 새로운 過度集積을 造成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여기에 어떤 種類의 立地調整을 必要로 한다. 이에 反해서 後者는 旣成大工業地帶로부터 遠距離地點에 立地하고 關聯機械工業 2次加工品工業을 誘發함으로써 工業의 遠心的 分散에 有効할 뿐만 아니라 雇傭機會를 創造하는 등 地域開發의 起動力이 되는 것이므로 適當한 規模를 가지는 工業地帶로서 計劃的으로 誘導育成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工業의 配置를 생각할 때에는 如斯한 企業의 立地的

動向을 尊重하면서 長期的 國民經濟의 觀點위에 서서 立地誘導를 行하고 地域의 均衡이 取하여진 工業開發을 圖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工業地帶을 大別하면 大體로 다음과 같다.

I. 서울을 中心으로 仁川 水原을 連結하는 一帶

II. 大田을 中心으로 淸州 鳥致院을 連結하는 一帶

III. 大邱를 中心으로 密陽 慶州를 連結하는 一帶

IV. 釜山을 中心으로 鎭海 馬山 三千浦를 連結하는 一帶

V. 光州 木浦를 中心으로 하는 一帶

VI. 群山을 中心으로 全州 長項을 連結하는 一帶

VII. 忠州를 中心으로 寧越 聞慶을 連結하는 一帶

VIII. 北坪 三陟을 中心으로 江陵을 連結하는 一帶

等 8個地區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며 I~VI은 製造業工場地帶이며 VII~VIII은 鑛業 및 工業地帶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工業이 一層 더욱 發達함에 따라서 前記 工業地帶들은 더욱 그의 範圍가 擴大될 것이 豫想된다. 그리고 各地區는 그들 各各의 特性과 그 役割에 따라서 그의 育成을 圖謀한다.

② 工業開發의 推進策

以上과 같은 工業開發의 基本方向에 따라서 그의 效率的 實現을 期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工業開發施策을 強力히 推進한다.

I. 工業의 誘發 分散에 있어서는 開發效果가 높은 地區로부터 集中的으로 行하고 資本의 效率化 및 地域資源의 有効適切한 活用을 圖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爲해서는 各地域마다 工業의 業種 및 規模를 定한 工業의 適正配置에 關한 計劃을 作成하고 企業誘導의 指針을 삼아야 한다.

食料品……工業中心地는 京仁地區이나 工業擴大可能地로서는 서울特別市 全南이 有望함.

纖維工業……工業中心地는 大邱地區이나 工業擴大可能地로서는 서울特別市 慶南北이 有望함
衣服 및 製品……工業中心地는 서울特別市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慶南이 有望함

製材 및 木製品……工業中心地는 釜山地區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서울特別市가 有望함

家具 및 諸備品……工業中心地는 서울特別市이며 工業擴大可能地도 서울特別市임

紙類 및 製品……工業中心地는 서울特別市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京畿道가 有望함

印刷 및 出版……工業中心地는 서울特別市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慶南이 有望함

코우製品……工業中心地는 釜山地區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서울特別市가 有望함

化學工業……工業中心地는 京仁地區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慶南이 有望함

石油 및 石炭製造業……工業中心地는 서울特別市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全南이 有望함

第一次金屬工業……工業中心地는 仁川地區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서울特別市가 有望함

유리 및 土石製品……工業中心地는 京仁地區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慶南이 有望함

金屬製造……工業中心地는 서울特別市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慶北이 有望함

機械製造業……工業中心地는 釜山 東萊地區이나 工業擴大可能地로서는 서울特別市가 有望함

電氣機械器具製造業……工業中心地는 서울特別市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慶南이 有望함

輸送用機械器具製造業……工業中心地는 釜山地區이나 工業擴大可能地는 서울特別市 京畿道가 有望함

Ⅱ. 大規模工業開發地區를 積極的으로 育成하기 爲해서 各地區마다 그 地區에 適合한 工業의 業種 및 人口의 規模와 勞動力의 需給狀態를 想定하고 必要한 基盤施設의 整備를 圖謀하기 爲해서 公共投資를 重點的으로 投下할 必要가 있다. 具體的으로는 電力對策 產業道路의 建設 工業用水道의 建設 等

Ⅲ. 既成工業地帶로부터 整備地域 또는 開發地域으로 分散을 促進시키기 爲해서 立場產業과의 相互關聯性을 留意하면서 中小企業團地의 達成 機械工業 等の 分散 誘導를 行함과 同時에 稅制 金融上의 優待措置를 講究한다.

Ⅳ. 整備地域 및 開發地域內에 있어서 既存工業을 保護育成하고 그 地域에 適合한 새로운 工業을 育成하기 爲해서 稅制 및 金融上의 特惠措置를

講究한다.

V. 密集工業地帶의 分散을 促進시키기 爲해서 그 地帶에 不利한 工業에 對해서는 適當한 助言을 行하고 또 密集工業地帶의 弊害를 緩和하기 爲해서 道路 鐵道 港灣 工業用水道 發電施設을 中心으로 한 產業基盤整備를 積極的으로 推進시킨다.

Ⅵ. 特定地域의 選定基準에 있어서는 輸出資源을 包含한 各種利用可能資源과 既利用資源中 擴大利用可能資源 等を 多數 包含하고 있는 地域을 擇하고 開發效果가 短時日內에 發揮할 수 있어야 한다.

(2) 農林 漁業의 發展方向

① 農 業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對應해서 農林漁業도 또 生産基盤의 整備, 技術의 進步와 더불어 크게 發展하여 왔다. 그러나 그의 發展의 速度는 一般 其他產業과 比較해서 뒤떨어지고 國民經濟上 農林·漁業이 占하는 比重은 漸次로 低下하는 傾向에 있다. 從來도 農林·漁業部門에 있어서는 收益이 높고 需要가 많은 生産物에의 轉換이나 加工度의 向上, 其他 產業으로의 勞動力의 移動, 兼業化란 形態로써 이 傾向에 對應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왔으나 이의 對應도 地域의 自然的 社會的 條件의 相異 等に 依해서 반드시 充分하지 못하였고 生産性에 있어서도 產業間 및 地域間格差를 增大化시키기에 이르렀다. 그의 主要한 原因으로서 는 첫째로 自然的 諸制約만만 아니라 農業構造의 後進性과 農業經營의 零細性, 資本不足 等に 依해서 需要變化 等の 새로운 經濟環境에 卽應하는 體制에 있어서 뒤떨어지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그 產物과 農產物과의 缺狀價格差와 生産物의 販賣, 勞動力의 移動 等の 諸條件에 依해서 地域差를 發生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今後의 農林·漁業의 發展은 國民經濟의 成長에 依해서 發生하는 產業構造의 變化, 其他의 諸條件 等を 考慮하면서 地域의 特性을 살리면서 調和的인 適應을 圖謀한다는 觀點에서 大體로 다음과 같은 方向을 指向해야 할 것으로 본다.

I. 農業生産의 基本問題는 農業生産力의 增大에 있으며 農業生産力을 높이기 爲하여서는 農產

物總量을 極大化하도록 土地利用을 高度化하고 優秀한 生産者에게 土地가 合理的으로 配分될 것이 要望된다.

Ⅱ. 需要構造의 變化에 對應하는 生産의 選擇的 擴大이며 韓國經濟의 工業化가 進展됨에 따라서 農産物의 需要構造가 變化하게 되고 이에 卽應하는 農業立地의 造成이 要望된다.

Ⅲ. 耕作面積의 擴張에 努力해야 겠다. 當面의 調査에 依하면 每年 15千町步의 面積增加가 全國에 散在하는 比較的 낮은 丘陵의 傾斜地 또는 西海岸과 南海岸에 沿한 干瀉地 等の 開發에 依하여 可能하다고 한다. 勿論 이러한 開拓地는 劣等地이긴하나 새로운 營農技術의 導入에 依하여 生産性이 높은 耕地로 轉換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新規耕地擴張에 對한 年次計劃을 樹立하여 植付面積의 增大를 期할 것이며 開墾事業이 所要經費에 있어서나 速効性에서 干拓事業보다 優位에 있으므로 新規耕地面積은 開墾에 優位를 두어야 할 것이다.

Ⅳ. 農地開發事業의 擴充을 期할 必要가 있다. 熱과 水分은 農業生産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주고 특히 米穀生産에서 水利安全은 不可缺한 要素이다. 아직도 水利不安全畚과 半半인 現況에 있어서는 米穀生産에서 차지하는 水利安全의 優位性은 明白하다. 政府當局이 調査한 바에 依하면 農地改良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可能地面積은 都合 1,308千町步에 達한다고 하며 이 竣工으로 8,871千石의 米穀生産을 期할 수 있다고 한다. 그 內容을 보면 灌溉改善이 437千町步, 地目變更 72千町步, 荒蕪地開墾이 30千町步, 耕地整理가 351千町步, 排水暗渠가 13千町步, 開畚이 343町步, 干拓地가 38千町步로서 所要工事費는 總額 554.9億 원으로 概算하고 있다.

Ⅴ. 品種更新과 蟲害驅除에 努力할 必要가 있다. 單位面積當 收穫量을 增大하기 爲하여 肥料增施와 더불어 品種更新은 速効性있는 增産策이라 할 수 있다. 單位面積當 3割程度의 增收를 期할 수 있는 品種更新은 全般의인 品種更新에 依하여 增收될 總量은 數百萬石에 達하는 多量이 될 것으로 推計된다.

Ⅵ. 營農技術改良과 農業敎導事業에 努力할 必要가 있다. 農業生産에 있어서 새로운 農業技術

을 導入하여 後進된 營農方法을 改善하는 것은 重要한 農業增産策의 하나이다. 農地改良事業이나 肥料增産等 農業增産策이 實施되는데 對應하여 農業增産이 別로 없으며 農業生産이 停滯되고 있는 近年의 事例는 그 理由를 舊態依然한 營農技術이 後進性에서 求할 수 있을 것이다. 土壤에 適合한 品種의 選擇, 選種施設과 方法의 改善, 金肥使用에 있어서의 成分의 配合比率, 適期適量의 施肥, 病蟲害 防除에 對한 農藥知識, 土壤試驗과 管理와 多收穫을 올리기 爲한 새로운 農業技術의 普及은 農業經營上 遲滯할 수 없는 時急한 問題이다.

여기에 實地 問題로 農業敎導事業을 強化하는 것이 要請된다. 敎導事業의 強化는 敎導機構의 確立과 優秀한 人的 構成에 있고 敎導事業의 確立을 爲해서 農業生産에 關한 調查研究事業과 技術研究의 結果 얻은 바 知識을 適用시키는 敎導事業을 一元化시켜야 할 것이다.

Ⅶ. 適正農産物價格의 維持를 期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農産物價格은 一般物價의 先導價格의 役割을 할뿐만 아니라 農家所得의 內容을 形成하므로 農家經濟의 再生産을 期하기 爲하여서는 適正農産物價格이 維持될 必要가 있다.

農業發展의 基本方向은 大體로 上述한 바와 같으나 農業生産의 自然的 經濟的 諸條件에 立脚하여 그의 地域別施策은 大體로 다음과 같다.

Ⅰ 過密地域

都市의 人口集中이 急速히 進行됨에 따라 都市 周邊에 있어서는 農地가 宅地, 工場, 其他施設로 利用되며 農地가 消滅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交通機關의 輻輳는 交通用地 等の 擴大增設이 顯著함에 따라 耕地가 많이 利用되고 있다. 따라서 如斯한 地域에 있어서는 立地條件에 卽應하면서 資本裝備와 強化 等に 依해서 經營集約化 大規模化를 行하고 都市用農産物의 生産을 促進시킨다.

Ⅱ 中部廣域

漢江水系로서 京畿道一帶와 江原道西部一帶, 南北漢江上流地域과 忠北의 東北地方이 이에 屬한다.

本地域의 東部는 山岳地로서 平野가 貧弱하나 西部地方은 平野가 卓越하여 耕地面積 6,804kw로서 全國의 33.5%를 차지하며 그中 畚은 全國

의 20% 田은 全國의 13%로서 農業이 旺盛하며 精穀生産이 約 672萬石으로 全國의 約 42%를 차지하고 있고, 鑛業은 全國의 90%, 各種製造業은 全國의 51.5%, 水産業은 全國의 36%로 매우 높은 比重을 占하고 있으며 特히 鑛業의 比重이 높은 것은 太白山地域의 豐富한 地下資源의 包藏에 起因하고 本地域의 有利한 水力地點도 또한 全國의 37%를 占하고 있어 에너지源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매우 重要的 位置를 占한다. 따라서 이 地域은 農業 鑛業 各種製造業 水産業 등이 有望하다.

Ⅲ 湖南廣域

東鎰津江 榮山水系로서 全南이 이에 屬한다. 本地域은 農業地帶로서 生産量은 精穀 510萬石으로 全國의 32%를 차지하며, 鑛業은 全國의 3.7%로서 極히 낮은 現況이나, 地下資源은 無煙炭을 비롯해서 10餘種類를 헤아릴 수 있고 特異한 것은 世界的으로 有効한 알미늄原料인 明礬石이 豊富히 埋藏되어 있고 유리原料인 珪砂는 全南一帶에 無盡藏으로 賦存하나 그 外에도 別로 期待할만한 것이 없다. 製造業에 있어서는 全國의 9.5%, 水産業은 21%로 農業에 이어 水産業이 다음으로 큰 比重이나 廣域別順位로 보면 農業이 2位, 鑛業이 3位, 水産業 製造業 등이 4位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地域도 農業 鑛業 水産業 製造業이 有望하다.

Ⅳ 嶺南廣域

洛東江의 水系로서 慶南北이 이에 屬하여 있다. 本地域의 産業에 있어서는 農業에 있어 精穀 414萬石으로 全國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廣域中 3位를 차지하고 있다. 鑛業에 있어서는 全國의 61%로서 中部廣域의 다음으로 銅을 비롯해서 鎊 重石 土狀黑鉛 등 많이 包藏하고 있다. 製造業은 全國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水産業은 全國의 43%로서 首位를 占하고 있는 水産中心圈이며 外國資源은 輸入中心國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地域은 農業生産도 有望하며 水産業 製造業도 有望하다.

Ⅴ 湖西廣域

錦江流域으로 忠南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大田勢力圈이다. 農業에 있어서 精穀 約 33千萬石으로 全國의 12.7%를 占하고 있고 廣域中 4位를 占한다. 半穀生産量으로만 보더라도 全南

北과 京畿道에 다음가는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이 地域도 農業 등이 有望하다.

Ⅵ 關東廣域

江原道の 嶺東地域으로서 江陵 三陟勢力圈에 屬하는 地域이다. 이 地域은 地下資源을 豊富히 包藏하고 있는 太白山脈을 背景으로 하고 있으므로 鑛業이 매우 旺盛하고 鑛業 水産業 등이 有望하다.

② 林業

第2次大戰中 日帝의 戰爭遂行에 따른 軍用材의 徵發과 松根油增産으로 南韓의 成林은 적지 않은 被害를 입었다. 그뒤를 이어 解放後는 社會秩序가 混亂한 틈을 타서 無慈悲한 一般民衆은 林木의 濫伐을 恣行하여 林相이 貧困하여졌으며 6.25事變에 依한 人爲的 被害와 病蟲害에 依한 自然被害로 林野의 大部分이 赤土禿山으로 荒廢化되었다. 1954年末 現在 南韓의 林野總面積이 6,396千町步로 全國土의 73%에 達하기는 하나 立木地가 3,148町步, 散生地 1,645千町步, 未立木其他가 1,601町步로서 立木地는 林野總面積의 4.92%를 占하여 1946年보다는 減退되고 있고 이에 따라 散生地 未立木地面은 遞增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山林資源은 一般的으로 林野面積에 比하여 極히 貧弱하며 蓄積量은 70,957km², 平均蓄積은 1,050m³/km², 年內生産量 3.8億圓에 不過하다. 따라서 未成林地의 造林과 山林의 育成으로 生産이 大幅的으로 擴大될 수 있는 마 現況과 擴大可能量은 大體로 다음과 같다.

現況

針葉樹	47,508,571m ³
闊葉樹	27,448,483m ³
竹林	1,481,315m ³
計	70,957,054m ³
生産蓄積量	450,000m ³
擴大蓄積量	26,301,309m ³
增産可能量	168,208m ³ =1.4億圓

山林資源의 開發은 다음과 같은 方向에서 行하여져야 한다.

Ⅰ 植樹日을 期한 愛林思想의 鼓吹를 一大國民運動으로 活潑히 展開하여야 한다.

Ⅱ 育林豫算의 擴充으로 造林事業의 推進은 勿論 造林能力이 薄弱한 山林所有者에게는 國庫補

助金を 提供하는 等の 特惠措置를 講究한다.

Ⅲ 現行 伐採許可制度 自體를 一層 強化하여 林産燃料의 代替策을 講究한다.

Ⅳ 國庫補助나 資金融通으로 養苗事業을 育成한다.

③ 漁業

우리나라는 周圍 三面이 바다이며 近海에 漁場을 育成하는 潮流에 따라 魚族의 分布가 豊富하여 推定量은 1.2億噸으로 보는 바, 現生産量은 451噸에 不過하나 앞으로 裝備를 改善한다면 720噸까지 生産을 擴大化시킨다면 85億원으로 收入을 增加시킬만한 資源을 包藏하고 있으며 水産資源現況과 擴大量은 大體로 다음과 같다.

總賦有量	1.2億噸		
現生産量	45萬噸	金額	55億원
增加可能量	26萬噸	金額	30億원
計	71萬噸	金額	85億원

水産物의 需要構造의 變化와 工業開發에 따르는 影響을 考慮하면서 다음과 같이 施策이 講究되어야 한다.

I 漁船의 確保를 위한 國內造船工業의 振興이 要望된다. 水産業에 있어서 漁船의 存在는 農業에서의 農器具, 工業에서의 機械施設과 마찬가지로 漁業生産의 必須道具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漁船의 隻數 및 그 性能의 優劣은 곧 水産生産의 盛衰를 示顯하기 때문이다.

Ⅱ 漁場의 造成改良을 積極化할 必要가 있다. 漁業許可의 濫發과 不正漁業取締의 不徹底로 水産資源이 漸次로 減少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이리하여 親魚 稚魚 및 魚卵 등을 닥치는대로 濫獲하여 왔으므로 東海岸의 名物인 靑魚資源과 南海岸의 「大口」漁場이 滅亡하였고 其他 「도미」 「石首魚」 등의 漁業도 每年 減退의 傾向을 보이고 있다. 爲政當局은 不正漁業을 徹底히 團束하고 漁場을 保護 育成할 必要가 있다.

Ⅲ 價格安定을 위한 流通機構의 整備를 圖謀해야 한다. 水産物은 商品으로서의 耐久性이 稀薄하여 生産으로부터 消費까지의 處理方法을 講究해야 하며 이를 爲해서는 水産物을 短時日內에 處理할 수 있는 流通機構를 整備해야 할 뿐만 아니라 冷蔵裝置 鹽藏 凍조림 等の 方法에 依해야 한다.

Ⅳ 漁業生産基盤으로서의 漁港의 整備를 合理

的인 配置計畫에 立脚해서 重點의 으로 推進한다.

(3) 都市發展의 方向

都市에 關한 計畫의 重點은 大別해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經濟圈의 中核體로서 主導的 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 都市群 및 그의 中核體와 有機的으로 結付되어서 經濟圈의 內部的 發展의 推進力으로서의 機能을 다하는 都市를 育成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産業 및 人口의 集中에 依해서 이미 過大化되어 있는 都市의 諸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다. 그런데 經濟圈의 中核體 또는 推進力으로서 機能하는 諸都市의 配置는 工業의 立地에 많이 左右되나, 그러나 配置 育成될 都市의 全部가 工業都市의 機能단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都市가 都市로서 具備하는 諸機能 例를 들면 商業 消費 文教 政治 等の 機能을 有機的으로 結合시킴을 充分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機能을 하나의 都市에 過度히 重複시킬 必要는 없고 이는 過大都市의 弊害를 크게 招來하는 原因이 된다.

그리고 重點開發方式에 依한 都市配置의 方向은 大別해서 大體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各種 機能의 大規模인 集積과 急激한 發展에 대해서 都市 公共施設의 顯著한 不均衡이 發生하고 있는 過大都市의 諸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여기에 再開發을 通해서 都市機能의 有效한 發揮를 期함과 同時에 過大都市에서 相當한 距離를 두고 그의 機能의 一部를 分擔하는 都市를 配置하는 것이다.

I. 過大都市에 있어서는 그의 弊害의 程度에 따라서 既存의 諸施設을 可能한 限 分散시키고 産業과 人口의 集中을 極力 防止하기 위한 必要한 制限을 加하고 公共施設의 整備와 市街地의 再開發을 通해서 都市機能의 高度化를 期한다. 過大都市의 周邊都市에는 住宅都市 工業都市 등을 有效適切히 配置한다. 이를 爲해서는 大都市와 連結하고 交通通信 等の 連絡施設의 整備를 斷行하고 過大都市의 機能의 一部를 代身케 한다.

Ⅱ. 整備地域 및 開發地域에 있어서는 大規模 工業開發地區를 가지는 都市를 配置한다.

{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副教授 }
{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附屬 }
{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